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연구

- '아니', '좀', '그냥'을 중심으로 -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張 月 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연구

- '아니', '좀', '그냥'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구 본 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張 月 馨

장월형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5년 6월

위 원 장

김 병 준



부위원장

윤 대 석



위 원

구 본 관



국문 초록

한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한국어 교육에서는 문법, 발음 등의 정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경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상황과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담화표지는 화자의 의도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담화표지는 담화에서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특정한 기능을 가지며 말을 유창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부사어 담화표지는 담화표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는 부사와 부사어 담화표지의 의미나 기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사와 부사어 담화표지를 구별하고 실제 담화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처럼 부사어 담화표지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II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담화표지의 정의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 '아니', '좀', '그냥'을 중심으로 한국어 부사와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및 기능에 대한 분석하였다. 또한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였고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현황과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를 하였다.

III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II장에서 논의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만들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실시하였다. 그 후에 중국인 학습자의 사용 양상이 왜 이런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 담화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제 대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데에 오류나 비오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정리하고 해석하였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본 내용과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목표에 따라 효과적인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였다. 즉 부사어 담화표지의 중요성의 이해,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기능 간의 차이, 일반적 기능, 적절한 표현 내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수-학습 방안을 설정하였고 교수-학습 모형을 마련하고 교육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부사와 부사어 담화표지를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가 상황이나 문맥에 맞게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 주요어 : 한국어 교육, 부사어 담화표지, 중국인 학습자, 아니, 좀, 그냥

* 학 번 : 2013-23899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5
2.1. 국어학 및 국어교육에서의 선행 연구	5
2.2. 한국어교육에서의 선행 연구	7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1
II.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을 위한 전제	14
1. 담화표지의 정의 및 유형	14
1.1. 담화표지의 정의	14
1.2. 담화표지의 유형	19
2.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기능 분석	21
2.1.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22
2.1.1. 부사로서의 '아니'	22
2.1.2. 담화표지로서의 '아니'	24
2.2. 부사어 담화표지 '좀'	29
2.2.1. 부사로서의 '좀'	30
2.2.2. 담화표지로서의 '좀'	31
2.3.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	35
2.3.1. 부사로서의 '그냥'	35
2.3.2. 담화표지로서의 '그냥'	37
3. 중국 내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현황	41
3.1. 한국어 교재 분석	41
3.2.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42

III.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사용 양상 분석 47

1.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기능에 대한 조사	47
1.1. 조사 참여자 정보	47
1.2. 조사 방법 및 자료 구성	49
1.3. 자료 분석	51
1.3.1.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사용 양상 조사 결과	51
1.3.2.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사용 양상 조사 결과	53
1.3.3.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사용 양상 조사 결과	55
2. 사후 인터뷰	57
2.1. 인터뷰 참여자 정보	58
2.2.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인터뷰 분석	58
2.3.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인터뷰 분석	66
2.4.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인터뷰 분석	72
2.5. 종합 문항의 인터뷰 분석	80
3. 실제 대화 분석	83
4.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의 해석	87

IV.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실제 90

1.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목표	90
2.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내용	91
2.1. 담화표지의 중요성의 이해	93
2.2. 통사적 의미 및 담화적 기능 간의 차이	95
2.3. 부사어 담화표지의 일반적 기능 (이해)	97
2.4. 부사어 담화표지의 적절한 표현 (사용)	97
3.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학습 방안	99
3.1. 매체를 활용한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100
3.2. 모국어론을 활용한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104
3.3.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모형	106

4. 교수·학습 효과 검증	114
4.1. 실험 내용 및 참여자 선정	115
4.2. 실험 절차 및 방법	115
4.3. 실험 결과 분석	118
 V. 결론	 121
 * 참고문헌	 125
* 부록	133
* Abstract	141

표 차례

<표 1>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일상 대화에 나타난 담 화표지 전체 사용 빈도 및 비율	9
<표 2> 연구 방법	12
<표 3> 전사 기호	13
<표 4> 담화표지의 정의	15
<표 5> 전영옥(2002), 담화표지의 기능	17
<표 6>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분류	18
<표 7> 임규홍(1995), 한국어 담화표지의 유형	19
<표 8> 김태엽(2000), 한국어 담화표지의 유형	20
<표 9> 김순자·이필영(2005), 한국어 담화표지의 유형	20
<표 10> 선행 연구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기능	25
<표 11>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기능	29
<표 12> 선행 연구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기능	32
<표 13>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기능	35
<표 14> 선행 연구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기능	37
<표 15>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기능	41
<표 16> 한국어 교재에서의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	42
<표 17> 조사 참여자 정보	47
<표 18> 조사 참여자의 한국어 학습 기관	48
<표 19>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 예시	50
<표 20>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부분의 조사 결과	51
<표 21>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 - '아니' 부 분	52
<표 22>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아니'의 각 기능의 정답률	52
<표 23> 부사어 담화표지 '좀' 부분의 조사 결과	53
<표 24>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 - '좀' 부분	

.....	54
<표 25>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좀'의 각 기능의 정답률	54
<표 26>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 부분의 조사 결과	55
<표 27>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 - '그냥' 부 분	56
<표 28>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그냥'의 각 기능의 정답률	56
<표 29> 사후 인터뷰 참여자 정보	58
<표 30> 대화 분석 참여자 정보	83
<표 31> 실제 대화 조사에서 등장하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횟수	84
<표 32> 참여자 X, Y, Z 설문조사에서의 정답률	85
<표 33> 대화 조사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 사용 양 상의 예시	86
<표 34>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목적과 목표	91
<표 35>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내용	93
<표 36> '아니', '좀', '그냥'의 통사적 의미 및 담화적 기능	96
<표 37>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일반적 기능	97
<표 38> PPP 교수 방법론의 특징과 문제점	107
<표 39> OHE 교수 방법론의 특징과 문제점	107
<표 40> 언어교수방법론과 특징	108
<표 41> 효과 검증 실험 참여자 정보	115
<표 42> 사전 평가의 결과	118
<표 43> 사후 평가의 결과	119
<표 44> 사전·사후 평가 결과 비교	119

그림 차례

[그림 1]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담화표지의 구분	3
[그림 2]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사어 담화표지	4
[그림 3] 담화표지 학습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44
[그림 4]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45
[그림 5] 부사어 담화표지 어려워하는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46
[그림 6] I-I-I 방법론	108
[그림 7]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학습 모형	109
[그림 8] 효과 검증 실험의 절차	11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한국어를 사용한 학문적 연구, 통역 및 번역 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 대다수의 연구에서 한국어교육의 공통적인 요구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 발음 등의 정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므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경시할 수도 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도 정확성만 강조하다 보니 학습자들이 실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실수를 두려워해 발화를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구어 표현 방식은 한국인 모어 화자의 그것보다 다양하지 못하다. 따라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상황과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담화표지는 화자의 의도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담화표지와 같은 표현을 많이 쓰는 반면에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 사람처럼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기를 어려워한다. 박영순(2004)에서는 담화 차원에서는 이러한 담화표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담화 전체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담화표지가 담화 내에서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특정한 기능을 가지며 말을 유창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임규홍(1996)에서는 한국 구비 문학과 설화 자료의 경우, 14% 이상의 담화표지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의 발표문을 분석한 김영철(2012), 박미영(2010)의 연구에서도 각각 10.9%, 12.9%의 담화표지가 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한국어 구어에서 담화표지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교육에서 담화표지가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항목이라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안주호(2009)에서는 담화표지가 한국어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던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 너무나 다양한 담화표지가 존재하여 무엇을 교수 항목으로 선정하고 표준형으로 삼을 것인가를 정하기 어렵다. 둘째, 담화표지의 목록을 잡는 데 의견의 차이가 있다. 셋째, 담화표지가 기능별로 위계화되지 않아서 한국어 교육에서 무엇을 먼저 교수해야 하는지 항목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안주호(2009)에서는 담화표지는 구어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더 이상 군말, 주저어, 입버릇이 아니라 담화에서 일정한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서 담화표지가 한국어 교육에서 필수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주장하였다. 서희정(2010)에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은 한국어 학습자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발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일 뿐만 아니라 발화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고 또 담화표지는 화자의 발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효율적인 담화 기제라는 점에서 한국어 교육에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교육 항목이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보면, 교재에는 담화표지의 개념조차 없고 교육 과정에도 대부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의 담화표지는 단어로, 아니면 구절로 가르치고 학습자는 담화표지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그 단어나 구의 자체 뜻만 알고 있어 상황이나 문맥에 맞게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번역이나 통역도 정확하게, 유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담화 차원에서의 담화표지는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4년 10월에 중국인 고급 학습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먼저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담화표지의 구분¹⁾을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1)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담화에 대한 배운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담화표지를 담화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조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감순자·이필영(2005)에 따라 한국어 담화표지를 크게 어휘적 담화표지, 비어휘적 담화표지, 그리고 구절 담화표지로 구분하고 어휘적 담화표지는 다시 품사에 따라 분류하였다.

(1) 어휘적 담화표지

구분	품사	형태
감탄사 담화표지	감탄사	어/아, 으, 응, 음, 야, 네/예, 글썸, 자, 기타()
접속어 담화표지	접속 부사	그런데/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기타()
부사어 담화표지	부사	이제, 아니, 왜, 하여튼, 어쨌든, 그냥, 좀, 기타()
지시어 담화표지	대명사	이거/이게, 그거/그게, 저거, 저기, 기타()
	의문대명사	뭐, 기타()
	부사	이렇게, 그렇게, 기타()
	관형사	이, 그/거, 저,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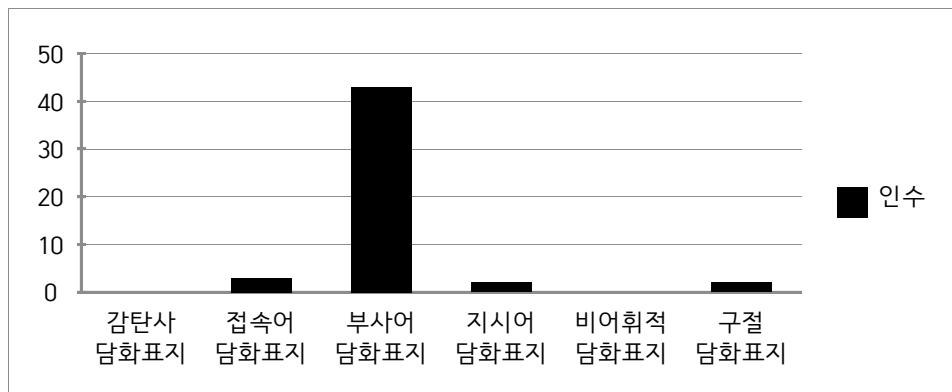
(2) 비어휘적 담화표지

-요, 기타()

(3) 구절 담화표지

있잖아, 뭐지, 말이야, 기타()

이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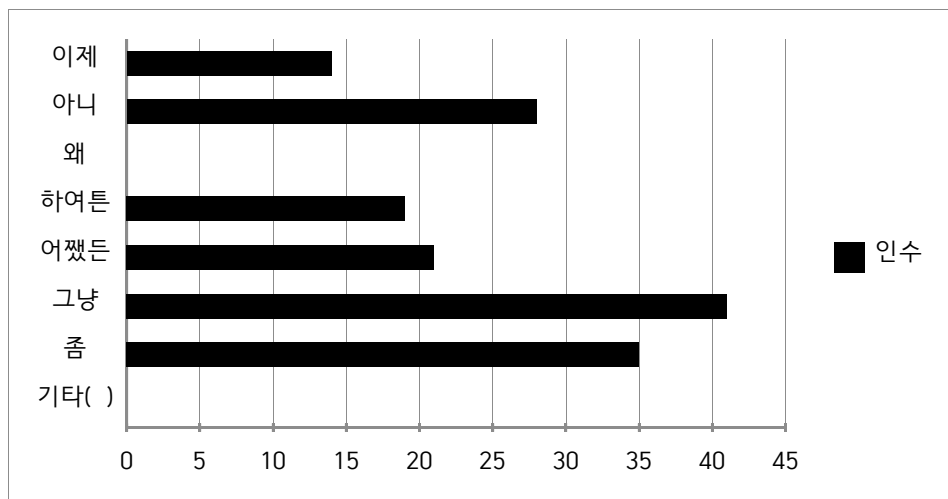


[그림 1]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담화표지의 구분

이 결과에 따라 50명 학습자 중에서 43명의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 ① 부사와 부사어 담화표지의 차이를 잘 모른다.
- ② 실제 담화에서 왜 하나의 부사는 자체의 뜻을 상실하고 다른 뜻을 가질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
- ③ 한국 사람에게서 부사어 담화표지의 다양한 기능을 들었지만 왜 그렇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른다.
- ④ 실제 담화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모른다.

이상 결과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담화표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사어 담화표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예비조사에서 학습자들이 부사어 담화표지에서 어려워하는 것을 선택하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중국인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부사어 담화표지

이 결과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위 3개의 부사어 담화표지는 '그냥', '좀', '아니'이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따라 부사 '아니'는 '부정이나 반대' 뜻으로, 부사 '좀'은 '정도가 적게' 혹은 '시간적으로 짧게' 뜻으로, 부사 '그냥'은 '그런 모양으로 줄곧' 뜻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학습자들이 드라마, 영화, 프로그램, 혹은 한국인과 대화를 통하여 '아니', '좀', '그냥'은 다른 기능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국인 학습자는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번역하는지를 확실히 모른다.

또한 한국인 모어 화자가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 순위에 따라 조남호(2003)에서는 부사 '아니'는 817위, 부사 '좀'은 90위, 부사 '그냥'은 303위로 되어 있다. 이는 이 3개 부사어 담화표지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용 빈도 순위와 예비조사의 결과에 따라 본고에서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어 담화표지의 정의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중국에서의 담화표지 교육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기능을 분석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오류나 비오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탐구한다.

셋째,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 방안을 마련한다.

2. 선행 연구

한국어 담화표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선행 연구를 국어학에서의 연구, 국어 교육에서의 연구, 그리고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구로 나누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2.1. 국어학 및 국어교육에서의 선행 연구

국어학 및 국어교육에서의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들은 안주호(1992), 김태엽(2000), 김향화(2001), 전영옥(2002), 김순자·이필영(2005), 김영철(2012)

등이 있다.

안주호(1992)에서는 먼저 담화구조와 담화표지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담화표지는 참여자가 어떤 의도로 표지를 썼는가에 따라 '시발(도입)표지'(opening), '전환표지'(Turn-taking), '종결표지'(closing)로 나누었다고 제시하였다.

김태엽(2000)에서는 담화표지를 '화자가 담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시키는 양상표지'로 정의하였다.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자기의 담화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자의 담화 전략에 따라 다양한 담화표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담화표지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본디부터 담화표지였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 전성되어 담화표지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본디 담화표지'와 '전성 담화표지'로 크게 나누고 분석을 하였다.

김향화(2001)에서는 담화표지의 연구범위를 분절적 담화표지에 국한시켜 분절적 담화표지의 기능을 밝혀내는데 목적을 두었고 담화표지의 식별 기준을 설정하였다. 즉 의미 변화의 여부, 기능 전이의 여부, 수의성 여부에 따라 담화표지 여부를 식별하였다. 그 다음에 담화표지의 기능은 주의 집중, 초점 표시, 고집의 표시, 담화 참여 유도, 놀람의 표시, 망설임의 표시, 부정의 표시로 나누었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살펴보았다.

전영옥(2002)에서는 담화표지는 구어 담화에서 실현되어 다른 담화 요소들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존의 어휘 의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표현이라고 하였고 이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1) 구어 담화에서 주로 실현된다.
- (2) 여러 언어 형식이 담화표지로 실현된다.
- (3) 억양 단위의 시작, 중간, 끝에 실현되면서 정보의 흐름을 조정하고 담화를 결속시켜 준다.
- (4)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제한된 어미의 활용만 한다.
- (5) 문장의 다른 성분과 통어적 관계를 맺지 않고 생략 가능성이 높아

독립적이다. 다만 담화표지로의 전환 단계에 따라 생략 가능성의 정도는 달라진다.

(6) 원래의 어휘 의미를 상실하여 담화표지로의 전환 과정에 있는 것도 많다.

(7) 다양한 화용 기능을 수행한다.

김순자·이필영(2005)에서는 담화표지의 선정 기준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통사적으로 다른 문장 성분과 관련을 맺지 않고, 생략이나 추가를 해도 문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는 담화표지로 본다는 것이다. 둘째는 담화표지가 원래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거의 없거나 약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담화표지의 유형은 그 형식에 따라 비어휘 담화표지, 어휘에서 전이된 담화표지, 구절 담화표지로 구분해 보았고 유아부터 초등학교의 담화표지 형식의 습득과 발달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았다.

김영철(2012)에서는 구어의 연구로서 음성 언어를 대상으로 실제 언어 생활에서 나타나는 담화표지 양상 중, 대학생들의 발표에 따른 담화표지 사용 양상과 그 기능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주로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은 담화 시작 표지, 시간 별기 표지, 주의 집중 표지, 화제 전환 표지로 나누고, 대학생들의 발표에서 나오는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담화표지는 의미적으로는 불필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표자의 발화 목적이나 의도를 청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언어형식임을 밝히고 있다.

2.2. 한국어 교육에서의 선행 연구

한국어 교육에서의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정선희(2006), 안주호(2009), 백은정(2011), 선신희(2012), 김상훈(2013), 이효경(2014), 원해운(2014) 등이 있다.

정선희(2006)에서는 담화표지를 입말 담화에서 실현되어 담화를 구조적으로 결속시켜 주면서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화 의도나 심적 태도를 효

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담화 책략상의 언어적 요소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청자를 배려한 기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재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담화표지 '글쎄', '뭐', '좀'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고 '인지 - 분석 - 확인 - 적용'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주호(2009)에서는 전통적으로 군말, 입버릇, 주저어, 부가어, 담화 불변화사, 환투사, 간투사의 용어로 불리던 담화표지를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룬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담화표지는 통사론적으로 불필요하고, 의미론적 차원에서도 내용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불필요한 요소로 보았지만 담화표지는 구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일정한 담화상의 기능을 가진다는 점에서 본다면, 한국어 교육에서 피해야 하는 부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필수 교수학습 항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필요성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습득해야 하는 담화표지를 선정해 보고, 교수 방법을 마련하였다.

백은정(2011)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일상 대화 시 실현되는 담화표지의 종류와 그 양상에 대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대조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연구의 마지막에서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일상 대화를 전사한 결과, 개인별 담화표지 사용에 있어 특정 담화표지를 반복 사용하는 개인별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다 치밀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과 이에 개개인별 담화표지의 실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제한점으로 밝혔다. 이 연구에서 실험을 통하여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일상 대화에 나타난 담화표지 전체 사용 빈도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일상 대화에 나타난 담화표지 전체
사용 빈도 및 비율

분류	기능	모어 화자			학습자		
		종류 개수	빈도(회)	비율	종류 개수	빈도(회)	비율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	화제시작	6	22	0.20	0	0	0
	화제연결 및 전환	24	315	2.76	21	109	0.93
	화제호응	19	267	2.43	23	657	6.00
	발화수정	5	22	0.20	3	12	0.10
	화제마감	4	18	0.16	1	1	0.009
총합	5가지 기능	59	644	5.75	48	779	7.039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	망설임	34	243	2.103	36	659	6.01
	발화강조	9	21	0.19	5	7	0.06
	관심유도	7	35	0.31	2	3	0.02
	체면손상 완화	2	15	0.13	3	3	0.02
	발화약화	2	3	0.02	0	0	0
	부정적 태도 기능	2	2	0.01	0	0	0
	초점기능	16	75	0.68	11	53	0.48
	응답회피	0	0	0	0	0	0
	공손태도	0	0	0	0	0	0
총합		72	394	3.443	57	725	6.59
전체		131	1038	9.19	106	1504	13.62
총 어절수		10950 어절			10950 어절		

선신희(2012)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응답 표지 '그래', '글쎄', '아니'의 한중 양국의 담화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중국어 대응을 비교하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긍정, 부정 응답 표지에 대응된 중국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입 - 제시 - 연습 - 활용 - 마무리'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김상훈(2013)에서는 구어문법의 필요성을 의사소통능력 향상의 목적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한국어 교재에서 크게 다루고 있지 않은 담화표지 '아무튼', '어쨌든', '하여튼'의 통사적 특징과 화용적 기능을 정리함으로써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이효경(2014)에서는 한국어 담화표지의 정의, 특징, 기능, 유형을 도입으로 담화표지 '자', '참', '있잖아'의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먼저 교육의 필요성, 그 다음에 각 담화표지의 형태, 통사, 화용적인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한국어 교육에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담화표지를 '자', '참', '있잖아'로 한정하여 일부 담화표지만을 논의하였다는 점과 분석 자료의 양이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는 것을 밝혔다.

원해운(2014)에서는 한국어 담화표지 '아니'와 중국어 '不是'의 화용기능, 형태적 특징 및 통사적 특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힘으로써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가 '아니'의 다양한 의미나 기능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에 목적을 두었고 연구를 하였다. 담화표지는 사전적 의미와 달리 다양한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고 언어에 따라서 어휘의 기본 의미가 같더라도 담화표지로서의 의미 기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잘 못 쓰거나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연구 필요성으로 하였다.

이상 국어학, 국어교육학, 그리고 한국어 교육학 분야의 한국어 담화표지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부사어 담화표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중국인 학습자는 부사와 부사어 담화표지 간의 차이, 그리고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예비 조사의 결과에 따라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을 중심으로 부사어 담화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기존의 연구는 담화표지 자체의 사용 원리나 언어 대조에 초점을 두었고 담화표지 교육에 초점을 두지 않아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함으로써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설문 조사, 사후 인터뷰, 실제 대화 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잘 못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담화표지 중의 부사어 담화표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을 연구 내용으로 선정하고 연구를 하고자 한다. 하나의 부사는 부사로서의 통사적 의미와 담화표지로서의 담화적 의미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습자가 실제 담화에서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담화에서 이런 부사어 담화표지가 가지고 있는 통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담화적 의미까지 다 알아야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알 수 있고 담화의 전체 뜻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중국인 고급 학습자 51명과 한국인 모어 화자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를 연구하고자 하고 <표2>와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II장에서는 먼저 담화표지의 정의와 기능에 대한 살펴본다. 기존 연구의 정의와 기능을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한국어 담화표지의 정의를 내리고 기능을 분류한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기능을 분석하고 제시한다. 또한 중국에서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 현황을 분석한다. 교육 현황은 한국어 교재와 학습자 설문으로 이루어진다. 중국 내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고 교재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를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제시한다.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이해 및 사용, 학습 경로, 수업에서 학습 방식 등 것에 대하여 분석하고 제시한다.

<표 2>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II장	담화표지의 정의 및 기능	문헌 연구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기능	문헌 연구
	중국 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현황	- 교재 분석 - 설문 조사
III장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사용 양상	- 설문 조사 - 사후 인터뷰 - 실제 대화 분석
IV장	교육 내용	조사 결과 분석
	교육 방안	- 문헌 연구 - 조사 결과 분석 - 실험 수업

III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 조사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전체 기능을 포함하고 총 21개의 문항이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는 모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수준으로 고급(5, 6급)에 해당하는 학습자들이다. 또한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대조 집단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 20명에게도 같은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제시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이 왜 이런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에 참여한 참여자 A, B, C 3명에게 사후 인터뷰를 실시한다. 사후 인터뷰는 각 문항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 이유에 대한 질문하고 녹음한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 담화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 조사에서 정답률이 높은 참여자 X, Y, Z 3명에게 보조로 실제 대화 조사를 실시한다. 대화 조사는 각자 한 시간 동안 자유롭게 대화를 함으로써 대화에서 등장하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회수를 제시하고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데에 오류나 비오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정리하고 해석한다. 본고에서는 사후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전사 작업을 한다. 전사는 GAT(Gesprächanalytische Transkriptionssystem), 그리고 안의정(1998)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표 3> 전사 기호

기호	설명
(-)	짧은 휴지, 중간 휴지.
;, ::, :::	길이 연장. 길이에 따라 다르다.
(...)	말화 생략 경우.
=	말화 정정, 망설임.
<vocal desc=' '>	음소 아닌 요소.

IV장에서는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교육 방안을 수립한다. 교육 내용은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본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다. 교육 방법을 수립하기 위하여 I-I-I모형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수업을 실시한다.

Ⅱ.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을 위한 전제

1. 담화표지의 정의 및 유형

1.1. 담화표지의 정의

허용 외(2005)에서는, 외국어 능력이란 물론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네 가지 기능이 골고루 발달되어야 하나 의사소통능력이 중요시되는 상황에서는 네 가지 기능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말하기 기능이고,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아 서로 대화할 기회가 잦아진 상황에서 말하기 교육은 예전보다 훨씬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였다. 영국의 응용 언어학자들도 언어는 단순한 구조를 숙달하는 것보다는 의사소통능력 숙달에 교수의 초점을 두어야 하고, 또 언어는 독자적인 체계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 속에서 갖는 기능 위주로 분석 기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말하기 교육과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제2언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다.

의사소통적 언어 교수 과정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말의 유창성이다. 말을 유창하게 해야 자연스러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말의 유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는 담화표지이다.

담화표지(Discourse markers)라는 용어는 라보프와 펜셸(Labov & Fanshel, 1977)에서 'well', 'now', 'right'과 같은 화제를 변화하는 요소를 지칭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되었다. 그 후에 담화표지에 대한 학자들마다 정의가 서로 다르고 복잡하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담화표지의 정의

Schiffrin(1987)	담화의 단위를 일괄적으로 묶어주는 연속적으로 의존적인 요소이다.
Blakemore(1987)	이들 표현은 하나의 담화 요소가 다른 것에 어떻게 의존하는지에 대해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Redeker(1990)	즉각적인 문맥에서 발화의 관련성을 신호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학적 표현이다.
안주호(1992)	지금까지 감탄사나 문장부사, 접속부사로 알려져 왔던 것들이 담화적 층위에서 기능하는 것으로 도입-화제-종결로 이어지는 담화구조의 첫머리에 나타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언어형식이다.
이해영(1994)	통사적으로는 전혀 예측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하나의 독립된 발화로서 화제를 제기하고,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를 보임으로써 담화의 연관성을 유지시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김영희(1995)	문장의 명제적 의미와는 관계없이 말할이의 통신 의도만을 표시하는 성분이다.
김선희(1995)	담화표지는 담화의 결속력(coherence)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담화전략(discourse strategy)이 된다.
이한규(1996)	담화표지어는 그것이 나타나는 문장(또는 발화)의 명제 의미(또는 진리조건적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말하는 이의 믿음, 전제, 태도 등을 보여주는 모든 언어적 형태이다.
김미숙(1997)	담화 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지들을 지칭하는 범주로서 주로 정제된 문어에서보다는 구어에서 나타나는 표지들을 지칭한다.
Uta Lenk(1998)	담화표지는 구어 담화에서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기능을 가지고 화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표현을 가리키는 말이다.
임규홍(1998)	담화표지는 담화 상에서 명제적 의미보다는 말할이의 태도나 발화 전략의 기능을 한다.
김태엽(2000)	화자가 담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입시키는 의도적인 양상표지이자, 자립적인 언어형식이다.

전영옥(2002)	담화표지는 의미론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표현이나, 기존의 의미·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획득하게 된 표현이 언어 사용 또는 담화 차원에서 새롭게 존재 이유를 갖고 사용되는 것이다.
이정애(2002)	구어의 담화 상황에서 잉여적으로 사용되는 주변적인 표현으로서 원래 구상적인 어휘적 의미를 기저로 한 내용어 및 기능어가 문법화를 거쳐 점차 추상적인 화용적 의미를 획득한 담화적 장치이다.
정선희(2006)	담화를 구조적으로 결속 시켜주면서 화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화 의도나 심적 태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담화 책략상의 언어적 요소이다.

이상 살펴본 담화표지의 정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의 담화표지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전달하고, 또 담화의 유창성 유지, 응집성 구현을 위하여 사용하는 책략적인 장치라고 정의한다²⁾. 이 정의에 따라 먼저 담화표지는 화자의 의도나 감정을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 의사소통적 언어 교수 과정에서는 말하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하기 때문이다. 담화표지는 실제 담화에서 그 자체의 통사적 의미 외의 다른 기능도 실행할 수 있는데 화자의 의도나 감정도 표현할 수 있다. 또 담화표지는 담화의 유창성 유지, 응집성 구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담화표지가 담화의 유창성과 응집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화자가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상 정의를 보면 담화표지는 의사소통적 언어 교수에서 중요한 교수 요목이다.

이상 담화표지의 정의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담화표지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에 대해서도 분류가 많지만 많은 학자들은 담화 화제

2) 김순자·이필영(2005)에서는 연구 방향에 따라 담화표지(discourse marker)의 개념과 정의에 차이를 보이지만, 발화의 명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발화 연결이나 화자의 태도 표시, 담화 구조 표시 등 일정한 담화상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 요소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고 하였다.

를 중심으로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은 화제와 화제 결속, 화자와 화제 결속, 그리고 화자와 청자 결속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기능 분류는 전영옥(2002)³⁾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5> 전영옥(2002), 담화표지의 기능

기능		실례
화제와 화제 결속	화제 시작	자, 있잖아, 다른 게 아니라
	화제 진전	그래, 그래도, 그래서, 그러니까(근까), 그 런데(근데), 그럼, 그렇지만, 그리고 등
	화제 전환	자, 그런데(근데), 그 답에 등
	화제 연결	그래가지고(구)
	화제 마무리	아무튼, 어쨌든, 여하튼 등
화자와 화제 결속	시간 벌기	자, 저, 이제, 뭐(야), 근까, 이케, 저케, 이, 그, 저, 이런, 그런, 어떤, 무슨, 거 기, 저기, 어, 아, 예, 그래가지고(구), 이 런 거, 그런 거
	얼버무리며 넘어가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주장 약화하기	글쎄
	주장 강조하기	아니, 하여튼, 말이야, 있잖아
	디딤말 기능	이제, 그까, 어 가지고, 그래가지구, 말이 야, 있지, -요, 어, 응
	수정하기	아니, 아, 그까
	부정적인 태도 표현 하기	뭐, 막
화자와 청자 결속 (상호작 용)	주의 집중 (관심 끌기)	자, 저, 아니, 이제, 말이야, 있잖아
	대화 진행 조정하기	자
	발언권 가져오기	아니, 근데, 근까, 있잖아
	정중하게 말하기	저, 저기(요), 글쎄
	호응하기	어, 아, 음, 응, 예, 네, 아이고, 어머

3) 전영옥(2002)에서는 하나의 형식이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원래의 어휘 의미적 기능에서 확장되어 다양한 담화 기능을 획득한다. 곧 어휘의 명제적 의미를 기지고 있는 화제와 화제의 결속 기능에 관련하던 언어 형식이 화자와 화제의 관계, 화자와 청자의 관계로까지 기능을 확장 시키면서 담화를 여러 측면에서 결속시켜 주는 담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이 크게 담화의 구조와 주로 관계되는 담화 진행상의 기능과 담화상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에 의해 주로 화자의 발화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연구는 정선희(2005)⁴⁾이다. 본고에서의 담화표지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책략적인 장치이기도 하고 담화의 유창성 유지, 응집성 구현을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 요소이기도 하다'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정의에 따라 본고에서는 정선희(2005)를 바탕으로 담화표지의 기능은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과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으로 분류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표 6>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분류

분류	기능의 종류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	화제 시작(주의 집중), 화제 연결 및 전환, 화제 호응하기, 실수 교정, 화제(담화) 마감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	시간 벌기(망설임), 응답 회피(얼버무리며 넘어가기), 발화 약화하기, 발화 강조하기, 발화 유도(호기심 표현), 체면 손상 완화, 초점, 공손 태도, 부정, 불평 태도, 수용불가 태도(감탄이나 놀라움)

4) 정선희(2005)에서는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분류	기능의 종류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	화제 시작 기능, 화제 연결 및 전환 기능, 화제 호응 기능, 발화 수정 기능, 화제(담화) 마감 기능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	망설임 기능, 발화 강조 기능, 관심 유도 기능, 체면 손상 완화 기능, 발화 약화 기능, 초점 기능, 응답 회피 기능, 공손 태도 기능, 부정적 태도 기능

1.2. 담화표지의 유형

부사어 담화표지를 탐구하려면 먼저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과 유형을 살펴해보아야 한다. 전영옥(2002)에서는 한국어 담화표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 ㄱ. 실현 환경: 구어 담화에서 실현.
- ㄴ. 실현 형식: 여러 언어 형식(감탄사, 부사, 구절 등)이 담화표지로 사용.
- ㄷ. 운율적 특징: 억양, 휴지와 관련.
- ㄹ. 형태적 특징: 형태적으로 고정성이 높음.
- ㅁ. 통사적 특징: 문장의 다른 성분에 독립적. 필수 성분 아님.
- ㅂ. 의미적 특징: 어휘의 명제적 의미에서 변이.
- ㅅ. 화용적 특징: 다양한 담화 기능 수행.

이 특징들을 통하여 담화표지는 통사론과 의미론 층위에서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화용론 층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담화에서 담화표지가 없어도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할 수 있지만 담화표지를 사용하면 말을 더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청자에게 화자의 의도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한국어 담화표지의 유형에 대한 논의는 많다. 안주호(1992)에서는 담화표지는 참여자가 어떤 의도로 표지를 썼는가에 따라 부름표지, 시발(도입)표지, 전환표지(turn-taking), 종결표지(closing)로 나뉜다. 임규홍(1995)에서는 한국어 담화표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7> 임규홍(1995), 한국어 담화표지의 유형

어휘적 담화표지	어휘 반복 담화표지	선행 담화의 성분을 반복함 서술어류, 부사어류, 어미류, 지시어류, 감탄사류
	어휘 삽입 담화표지	
비어휘적 담화표지	쉽(pause), 억양(intonation), 강세(stress)	

또 김태엽(2000)에서는 본디부터 담화표지로 기능하느냐 문법화에 의해 담화표지로 바뀌었느냐에 관심을 두고 다음과 같이 유형을 정리하였다.

<표 8> 김태엽(2000), 한국어 담화표지의 유형

본디 담화표지	감탄사, 부사어, 지시어, 운소(억양, 쉼, 강세)
전성 담화표지	내용어 → 담화표지 기능어 → 담화표지

김순자·이필영(2005)에서는 담화표지의 유형을 그 형식에 따라 비어휘 담화표지, 어휘에서 전이된 담화표지, 그리고 구절 담화표지로 구분하였다.

<표 9> 김순자·이필영(2005), 한국어 담화표지의 유형

유형	내용
비어휘 담화표지	-요
어휘에서 전이된 담화표지	감탄사 담화표지, 접속어 담화표지, 부사어 담화표지, 지시어 담화표지
구절 담화표지	있잖아, 뭐지, 말이야

본고에서는 한국어 담화표지의 유형은 김순자·이필영(2005)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담화표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고 또한 다른 분류 방법에서 학문적인 용어 많기 때문에 이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중국인 학습자에게 이해하기 더 쉽다. 둘째, 본고에서 중요한 연구 내용 중의 하나는 하나의 부사가 갖는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기능 간의 관계이다. 임규홍(1996)에서는 담화표지는 원래 어휘의 의미를 상실했지만, 담화표지의 기능은 어휘 의미에서 변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휘 의미로 구분한 것은 두 개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2014년 10월에 중국인 고급 학습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에 따라 86.0%의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한국어 담화표지

에는 부사어 담화표지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담화표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부사어 담화표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부사어 담화표지에는 '아니', '왜', '좀', '그냥', '이제' 등이 있다. 이상 담화표지의 특징에 따라 부사어 담화표지는 실제 담화에서 통사적인 의미와 다른 담화적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1) 가: 너 또 클럽 갈 거야?

나: 왜. 안 돼?

(怎麼, 不行嗎?)

예문(1)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왜'를 사용하고 있다. 이 '왜'는 단순히 부사로서 보면 통사적으로 '무슨 까닭으로, 또는 어째서'라는 의문의 뜻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예문에서의 '왜'는 부사어 담화표지로서 보면 불평하는 태도를 나타낸다. 즉 '너랑 상관없어', '제발 날 좀 가만 놔둬'라는 암시가 담겨 있다. 이때의 '왜'는 통사적 의문의 의미를 상실하고 불평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이런 부사어는 담화표지로 사용될 때 언어 환경에 따라 자체 부사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다른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앞에 예비 조사의 결과에 따라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상위 3개의 부사어 담화표지는 '그냥', '좀', '아니'이다. 각 비율은 82.0%, 70.0%, 56.0%이다. 또한 한국인 모어 화자가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빈도 순위에 따라 조남호(2003)에서는 부사 '아니'는 817위, 부사 '좀'은 90위, 부사 '그냥'은 303위로 되어 있으므로 이 3개 부사어 담화표지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실제 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을 중심으로 부사어 담화표지의 담화적 기능과 통사적 의미 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기능 분석

담화 차원에서의 언어표현은 그 표현의 통사적 의미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부사로서의 용법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사적 층위에서 부사로서의 '아니', '좀', '그냥'의 용법을 살펴보고, 사전적 의미를 위주로 하고, 다음에 화용적 층위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로서의 '아니', '좀', '그냥'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1.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2.1.1. 부사로서의 '아니'

부사로서의 '아니'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1」 ((용언 앞에 쓰여))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 아니 먹다/아니 슬프다/안방의 영감은, 아랫방에서 이야기 소리도 아니 들리는 것이 궁금해서 고개를 기웃이 빼고 내다보았다.《염상섭, 취우》
- 「2」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이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여))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말.
 ㉮ 나의 양심은 천만금, 아니 억만금을 준다 해도 버릴 수 없다./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아니, 죽어도 안 하겠다./아침까지만 해도, 아니 점심 먹을 때만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집 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수라장이 된 것이다.《박경리, 토지》/손이 저리다. 아니, 저린 정도가 아니고 손뼈들이 커다란 돌에 짓이겨지듯 무섭게 아프다.《홍성원, 육이오》

통사적 층위의 부사 '아니'는 사전에 따라 먼저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2) ㄱ. **아니** 먹다.
(먹지 않다.)

ㄴ. **아니** 슬프다.
(슬프지 않다.)

예시에서 나온 '아니 먹다'는 '먹지 않다'는 뜻이다. 다음에 '어떤 사실을 더 강조하다'는 기능도 한다.

(3) ㄱ.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아니**, 죽어도 안 하겠다.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더욱이) 죽어도 안 하겠다.

예시에서의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아니, 죽어도 안 하겠다.'는 '나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심지어 죽어도 안 하겠다.'의 뜻으로 '안 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부사 '아니'가 '아니다', 즉 '아니'의 형용사 형식인 '아니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남호 (2003)에 따르면 형용사 '아니다'는 한국인 사용 빈도 순위가 16위이다. 형용사 '아니다'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 그는 군인이 아니다./그 말은 사실이 아니어서 곧 탄로 나고 말았다./그 문제의 정답은 2번이 아니고 4번이다./나는 그의 보호자가 아니오.

「2」 ((‘의문형’으로 쓰여))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 사실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그에게 자유를 주며 그 자유를 격려해 주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이게 누구야. 철수 아니야?/이건 원래 고양이 그림이 아니었던가 싶다.

사전에 따르면 형용사 '아니다'는 부사 '아니'와 같이 '어떤 사실을 부정하다'는 기능을 한다.

- (4) 그는 군인이 **아니다**.
그는 (군인의 신분이 없다.)

예시에서 나온 '그는 군인이 아니다'는 '그는 군인의 신분이 없다'는 뜻이다. 또한 형용사 '아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가지며 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다'는 기능도 한다.

- (5) 이게 누구야? 철수 **아니야**?
(이게 분명히 철수야.)

예시에서 나온 '이게 누구야? 철수 아니야?'는 의문문이지만 '이게 바로 철수다'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상 부사로서의 '아니'의 사전적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부사로서의 '아니'는 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부정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강조 의미이다.

2.1.2. 담화표지로서의 '아니'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기본적인 기능은 부정부사로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기능을 연구하고자 한다.

<표 10> 선행 연구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기능

선행 연구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기능
김미숙(1997)	① 수용불가의 태도 표출 기능; ② 주의 집중 기능; ③ 실수에 대한 교정 표지 기능.
김은정(1998)	① 부정 기능; ② 앞선 율이나 직면하고 있는 비언어적인 상황에 대한 부정의 태도를 드러내는 놀라움이나 의외성; ③ 말할이의 의도를 추가 설명함.
신아영(2011)	① 부정적 태도 표현하기; ② 호응하기; ③ 주의 집중; ④ 발화 수정.
선신휘(2012)	① 부정 기능; ② 주의 집중 기능; ③ 놀라움이나 감탄스러운 기능; ④ 실수에 교정 기능.

본고에서는 <표 10>에서 김미숙(1997), 김은정(1998), 신아영(2011), 그리고 선신휘(2012)를 바탕으로, 또한 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화제 시작 기능(주의 집중), 실수 교정 기능, 부정 기능, 수용불가 태도 기능, 응답 회피 기능, 그리고 발화 유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가.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

먼저,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에는 화제 시작 기능과 실수 교정 기능이 있다.

- (6) 아내: **아니**, 애는 테이프가 잔뜩 쌓였는데 세 개씩이나 또 샀네.
(聽我說啊, 孩子們又買了三四個膠帶堆得滿滿的。)

여보, 우리 집 애들은 너무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 뭐, 테이프 좀 산 걸 가지고 낭비랄 것이야 뭐 있겠소? 한
창 나이에 그럴 수도 있지.

(韓國語教程 제43과)

예문(6)은 아내와 남편의 대화이다. 아내는 아이들이 너무 낭비한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여기서 아내가 '아니'를 사용하여 남편의 주의를 끈다. 또한 자기의 발화를 듣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화제 시작 기능, 즉 상대방의 주의를 집중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중국어 '聽我說' 혹은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喂'로 번역한다.

(7) 아버지: (...) 요즘 젊은이들이 무조건 새것만을 좇는 경향에 두려움마저 생겨서 그런다.

철호: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경쟁사회에서 이기려면, **아니** 그것보다 국제 사회에 보조를 맞추려면 우리가 배워서 알아두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걸요.

(我明白爸爸的意思, 但是, 想要在當今的競爭社會中獲得勝利, 不, 更重要的是如果要跟上社會發展腳步的話, 我們要學習掌握的東西太多了。)

(韓國語教程 제43과)

예문(7)은 아버지와 아들인 철호 간의 대화이다. 아버지는 철호가 옛것을 무시하고 새것만 좇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철호는 자기가 왜 이런지를 아버지에게 해석을 하고 있다. 철호는 그 이유가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것보다 국제 사회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중국어 '不'로 번역하고 부정의 기능도 하고 있지만 단순히 부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정 기능인 담화표지 '아니'는 주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을 하는 반면에 여기의 '아니'는 자기의 선행 말, 즉 자기가 앞에서 말한 실수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의 '아니'는 강조 기능도 한다. 즉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것보다 국제 사

회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나.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

다음으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에는 주로 부정 기능, 수용불가 태도(감탄이나 놀라움) 기능, 응답 회피(얼버무리며 넘어가기) 기능, 그리고 발화 유도(호기심 표현) 기능이 있다.

(8) 가: 내일 시간이 있어?

(明天有時間嗎?)

나: **아니**.

(沒有。)

(9) 가: 이 김치 매워?

(這個泡菜辣嗎?)

나: **아니**, 안 매워.

(不, 不辣。)

예문(8)와 예문(9)에서 나오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모두 부정의 뜻이고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부정하는 대답을 한다. 중국어 '不' 혹은 '沒有'로 번역한다.

(10) 스미스: 어? 저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새색시한테 대추를 던지시네요.

친구: 예, 대추를 받은 숫자만큼 자손을 많이 두고 행복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스미스: **아니**, 대추 숫자만큼요? 하하, 그건 너무한데요.

(天啊! 和大棗數量一樣多? 哈哈, 這也太說不過去了。)

(韓國語教程 제41과)

(11) 선생님: **아니**, 이게 누구야? 김영수 아니야?

(啊呀, 這是誰啊? 這不是金英洙嗎?)

김영수: 선생님,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韓國語教程 제24과)

예문(10)은 스미스와 그의 친구가 결혼식에서 하는 대화이다. 스미스가 대추 숫자만큼 자손을 둔다는 것에 대한 미리 예상하지 못하여 깜짝 놀랐다.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화자 스미스의 놀라움 감정을 나타낸다. 중국어 '天啊'와 같은 놀라움 표현으로 번역한다.

예문(11)은 선생님과 김영수가 길에서 우연히 만나 하는 대화이다. 선생님은 의외로 김영수를 만나서 기분이 매우 좋다.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화자인 선생님의 감탄스러운 태도를 나타낸다. 중국어 '啊呀'와 같은 감탄 표현으로 번역한다.

따라서 이상 예문(10)과 예문(11)에서 나오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모두 '수용불가의 태도 표출' 기능을 한다.

(12) 민수: 너, 은영이 왜 안 왔는지 알지?

철수: 당연하지. 애가...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當然知道了, 她呀...不, 沒什麼。)

민수: 왜. 빨리 말해 줘.

예문(12)에서 민수가 은영이 왜 안 왔는지 그 원인이 궁금해서 철수에게 묻고 있다. 철수가 그 원인을 알고 있어 알려주려고 하지만 갑자기 그 원인이 비밀이어야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이 발화를 중지하기 위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를 사용한다. 따라서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응답 회피 기능을 하고, 즉 이 화제에 대한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는 기능을 한다.

(13) 민아: 너 김 과장님 얘기 들었어?

철수: **아니**(↗).

(沒有, 怎麼了?)

민아: 이혼했다며...

예문(13)에서 민아가 철수에게 김 과장님 얘기 아느냐고 묻는다. 철수의 대답은 '아니(ㄱ)'이다. 여기의 '아니'는 민아의 질문에 대한 부정도 하고 있는 동시에 '내가 알고 싶어. 빨리 말해줘.'라는 감정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기의 대답도 하고 호기심도 표현하고 상대방인 민아의 발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상의 예문을 통하여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부정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기능도 가지고 있다.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기능

분류	기능	예시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	화제 시작 (주의 집중)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실수 교정	내가 오늘, 아니, 내일 숙제 할 거야.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	부정	가: 학교에 갈 거야? 나: 아니.
	수용불가 태도 (감탄이나 놀라움)	아니, 이게 말이 돼?
	응답 회피 (얼버무리며 넘어가기)	너 정말... 아니...
	발화 유도 (호기심 표현)	가: 그 얘기 들었어? 나: 아니(ㄱ).

2.2 부사어 담화표지 '좀'

2.2.1. 부사로서의 '좀'

부사로서의 '좀'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 '조금01[Ⅱ] 「1」'의 준말⁵⁾.

㉮ 물건값이 좀 비싸다./어머니가 좀 편찮으신 것 같다.

「2」 '조금01[Ⅱ] 「2」'의 준말⁶⁾.

㉮ 좀 늦었습니다.

「3」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말.

㉮ 손 좀 빌려주세요./이것 좀 드세요./무엇 좀 물어봅시다./그만 좀 해!

「4」 ((주로 '-어야' 앞에 쓰여))'어지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날씨가 좀 추워야 기동을 하지.

「5」 ((주로 수사 의문문에 쓰여))'얼마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

㉮ 둘이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니 좀 좋으냐?/그 집 짬뽕이 좀 맵니?
/날씨가 좀 춥니?

부사로서의 '좀'은 사전에 따라 먼저 '정도나 분량이 적게', 또한 시간적으로 짧게'의 기능을 한다.

(14) ㄱ. 물건값이 좀 비싸다.

물건값이 (아주 비싸지 않다.)

ㄴ.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많이 늦지 않았습니다.)

예시(14)에서 나온 '물건값이 좀 비싸다'는 '물건값이 아주 비싸지 않다'는 뜻이다. 즉 비싼 정도가 높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영어 'little'의 용법과 비

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금01[Ⅱ] 「1」'은 '정도나 분량이 적게' 뜻이다.

6)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조금01[Ⅱ] 「2」'는 '시간적으로 짧게' 뜻이다.

숫하다.

또한 부사로서의 '좀'은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게 한다'는 기능도 한다.

- (15) 이것 좀 드세요.
이것 (공손) 드세요.

'이것 좀 드세요'에서의 '좀'은 상대방에게 '드세요'의 요청을 하며 자기의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사로서의 '좀'은 '어지간히' 혹은 '얼마나'의 뜻을 하기도 한다.

- (16) ㄱ. 날씨가 좀 추워야 기동을 하지.
날씨가 (어지간히) 추워야 기동을 하지.

- ㄴ. 둘이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니 좀 좋으냐?
둘이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니 (얼마나) 좋다.

즉, '날씨가 좀 추워야 기동을 하지'는 '날씨가 어지간히 추워야 기동을 하지'의 뜻이고 '둘이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니 좀 좋으냐?'는 '둘이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니 얼마나 좋다'의 뜻이다.

이상 부사로서의 '좀'의 사전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담화표지로서의 '좀'의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2. 담화표지로서의 '좀'

부사로서의 '좀'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담화 차원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로서의 '좀'도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본고에서 먼저 선행 연구를 정리를 하였고 다음과 같다.

<표 12> 선행 연구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기능

선행 연구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기능
손세모돌(1988)	① 공손 기능; ② 강조 기능; ③ 부정 기능.
정선헌(2005)	① 공손 태도; ② 초점; ③ 발화 약화; ④ 응답 회피.
안주호(2009)	① 정중하게 말하기; ② 주장 강조하기; ③ 주장 약화하기; ④ 얼버무리며 넘어가기.

본고에서는 손세모돌(1988), 정선헌(2005), 안주호(2009)를 바탕으로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기능을 다시 정리하여 세분화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좀'은 공손 기능, 발화 강조 기능, 발화 약화 기능, 응답 회피 기능(얼버무리며 넘어가기), 그리고 부정 기능을 가지고 있다.

여러 논의를 통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미선: 생일 카드 좀 보여주십시오.

(請帶我看一下生日賀卡。)

판매원: 예, 이리 오십시오.

(韓國語教程 제4과)

예문(17)은 미선과 문구점 판매원 간의 대화이다. 미선은 생일 카드 사려고 하여 판매원에게 생일 카드를 보여 달라는 요청을 한다. 여기서 목적어와 서술어 중간에 '좀'은 사용하고 두 가지 기능을 한다. 하나는 미선이 모르는 사이인 판매원에게 공손 태도를 보여주는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어 '생일 카드'를 중점을 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생일 카드다'라는 사실을 강조

한다.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의 '좀'은 주로 공손 태도 표현의 기능을 한다. 즉, 상대방에게 요청을 부드럽게, 공손하게 하는 기능이다.

(18) 아주머니: 어디 나가세요?

미선: 우체국에 **좀** 갔다가 오겠습니다.

(去一下郵局就回來。)

(韓國語教程 제13과)

(19) 영수: 깜짝이야! 하마터면 앞차와 충돌할 뻔했어...

엄마: 아이고! 제발 조심 **좀** 해라!

(天啊! 你可千萬要小心一點兒!)

예문(18)에서 아주머니는 미선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고 미선은 우체국에 간다고 대답을 한다. 여기서의 부사어 담화표지 '좀'은 강조 기능을 하며 아주머니의 의문문에 있는 '어디'와 호응하고 목적지가 우체국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예문(19)에서 영수가 운전하다가 앞차와 충돌할 뻔했다. 엄마가 '제발 조심 좀 해라'라고 한다. 여기서의 '좀'도 강조 기능을 한다. 즉, 상대방인 영수에게 '운전할 때 꼭 조심해라'는 것을 강조한다.

(20) 아버지: 애들아, TV 소리 **좀** 줄이면 좋겠구나. 그런데 엄마는 어디 가셨니?

(孩子們, 把電視聲音調小一點。知道媽媽去哪兒了嗎?)

민영: 예, 그런데 아버지,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연락도 없으시고, 메모도 남기지 않으시고...

(好的, 可爸爸你不覺得奇怪嗎? 媽媽既沒有聯繫我們, 也沒有給我們留言。)

(韓國語教程 제45과)

예문(20)은 아버지와 아들인 민영이 집에서 하는 대화이다. 아버지는 TV 소리가 크다고 아들에게 줄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좀'은 발화 약화 기능을 하

는 것이고 아들에게 요청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여기서 '좀'을 사용하여 말투를 덜 딱딱하게 만들게 되었다.

아들 민영의 대답에 있는 '좀'도 발화 약화 기능을 한다. 윗사람인 아버지에게 자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달할 때 '좀'을 사용하고 자기의 발화를 약화시킨다. 이와 동시에 아버지에게 공손한 태도도 표현하고 공손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21) 유안: 너 술 잘 먹지? 거기 1분 안에 술 5잔 먹으면 10만원 상품권 줄 건데...

청균: 진짜?

유안: 응, 한 번 해 볼래?

청균: 아, 나 좀...(하기 싫다)

(啊, 那個...)

예문(21)에서 유안은 청균이 술 잘 먹는다고 생각이 들어 1분 안에 술 5잔 먹는 도전을 한 번 해 볼라고 한다. 청균은 그 자신이 없고 직접 거절하기도 부끄러워서 이 화제를 회피하려 한다. 여기서 담화표지 '좀'은 앞에 상대방 유안의 '한 번 해 볼래?' 질문에 대한 회피를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부사어 담화표지 '좀'은 보통 발화의 끝에서 나오고 뒤의 발화를 보통 생략한다.

(22) 웨이터: 음식은 괜찮으세요?

손님: 아, 좀...

(呃, 這個嘛...(不大好吃))

예문(22)은 식당에서 웨이터와 손님 간의 대화이다. 웨이터는 음식 맛이 어떠냐고 손님에게 물어본다. 손님은 맛없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맛없다고 대답하면 실례일까 봐 이 질문을 회피하고 싶어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부사어 담화표지 '좀'을 사용하여 회피 태도를 표현한다. 또한 여기서 '좀'은 회피 기능을 하고 있지만 완곡적으로 부정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즉, 부사어 담

화표지 '좀'만 사용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아니다. 음식은 안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이상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기능

분류	기능	예시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	해당 안 됨.	해당 안 됨.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	공손 태도	물 좀 주세요.
	발화 강조	제발 조심 좀 해라.
	발화 약화	음악 소리 좀 줄이면 좋겠어요.
	응답 회피 (얼버무리며 넘어가기)	가: 노래 한 곡 할래? 나: 저는 좀...
	부정 기능	가: 이 옷이 마음에 드세요? 나: 좀...

2.3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

2.3.1. 부사로서의 '그냥'

부사로서의 '그냥'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1」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 그냥 놔두다.
- 「2」 그런 모양으로 줄곧.
 ¶ 이노우에는 다른 사람이 비판할 여유를 주지 않고 그냥 낭독을 해대고 있었다.《유주현, 대한 제국》
- 「3」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 그냥 주는 거니?

사전에 따르면 부사로서의 '그냥'은 먼저 '더 이상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의 뜻이다.

- (23) ㄱ.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먹다.
아무것도 넣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먹다.

- ㄴ.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다.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들어갔을 때의 상태와 변화 없이) 나왔다.

예시에서 나온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다'는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의 그 상태로 나왔다'는 뜻이다.

또한 통사적 층위에서 부사 '그냥'은 '그런 모양으로 줄곧'의 기능을 한다.

- (24) 하루 종일 **그냥**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
하루 종일 (계속 우는 모양을 유지하면) 어떻게 해?

'하루 종일 그냥 울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에서의 '그냥'은 바로 그것이다. 이는 하루 종일 계속 우는 모양으로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부사 '그냥'은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의 기능을 한다.

- (25) ㄱ. 이것 진짜 **그냥** 주는 거야?
이것 진짜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거야?

- ㄴ. 아까 내가 한 말은 **그냥** 해 본 말이 아니야.
아까 내가 한 말은 (의미 없이) 해 본 말이 아니야.

예시에서 '그냥 주는 거야'는 상대방에게 '아무 대가 없이' 또는 '공짜로'

주는 것이냐는 뜻이다.

이상 부사로서의 '그냥'의 용법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부사어 담화표지로서의 '그냥'의 기능을 살펴보려고 한다.

2.3.2. 담화표지로서의 '그냥'

부사로서의 '그냥'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담화 차원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로서의 '그냥'도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본고에서 먼저 선행 연구를 정리를 하였고 다음과 같다.

<표 14> 선행 연구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기능

선행 연구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기능		
심 란 회 (2011)	담화 결속 기능	화제와 화제의 결속	화제 연결; 화제 마무리; 화제 전이; 화제 전개.
		화자와 화제의 결속	시간 벌기; 얼버무리기; 자기 수정; 보충 설명; 초점화.
		화자와 청자의 결속	주의 집중; 대화 순서 교체; 호응하기.
	양태적 기능	중요성 약화; 겸손한 태도 표현; 완곡한 의사 전달; 부정적 의사 표현; 망설임 표현; 화자의 태도 강조; 비판적인 태도 표현; 무관심의 태도 표현; 분노의 감정 표현; 급한 마음 표현; 불평, 탄식 표현.	
박 혜 선 (2012)	발화 약화; 공손 태도; 발화 강조; 화제 호응; 화제 연결; 화제 회피; 화제 전개; 자기 수정.		

본고에서는 심란회(2011), 박혜선(2012)을 바탕으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

'의 기능을 다시 정리하고 1.1에서의 담화표지 기능의 분류를 결합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은 화제 호응 기능, 응답 회피(얼버무리며 넘어가기) 기능, 발화 약화 기능, 발화 강조 기능, 불평 태도 기능, 부정 기능, 시간 벌기(망설임)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가.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에는 화제 호응 기능이 있다.

(26) 철수: 제가 다 할 테니까 쉬기만 하세요.

민아: 아니, 왜?

철수: 그냥...

(不爲什麼...)

민아: 그냥? 그냥이 어딴어?

(不爲什麼? 哪有不爲什麼?)

예문(26)은 철수와 민아의 대화이다. 민아는 철수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고 철수는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으로 그 대답을 회피한다. 이때 민아가 다시 '그냥'으로 되물으면서 철수의 대답에 호응한다. 따라서 여기서 민아의 '그냥'은 화제 호응 기능을 한다.

나.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

다음은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이다.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에는 주로 응답 회피 기능, 발화 약화 기능, 발화 강조 기능, 불평 태도 기능, 부정 기능, 그리고 시간 벌기 기능이 있다.

(27) 철수: 여기서 뭐 해?

민아: 그냥 뭐...
(那個...沒幹什麼...)

예문(27)에서 철수는 민아에게 여거서 뭐 하느냐고 물어보고 민아는 그 답을 하고 싶어하지 않아 회피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사용한다. 따라서 여기의 '그냥'은 뒤에 있는 '뭐'와 호응하고 응답 회피 기능을 한다.

(28) 철수: 아니, 이거 꼭 오늘 해야 돼? 난 오늘 시간 없는데...
민아: 급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내일 해도 돼.
(又不是什麼急事, 明天做也行。)

예문(28)에서 철수는 자기가 오늘 시간이 없어 그 일을 꼭 오늘 해야 한다고 민아에게 물어본다. 민아는 이 일이 급한 일이 아니라서 내일 해도 된다고 대답한다. 여기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사용하여 그 일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여기의 '그냥'은 발화 약화 기능을 한다.

(29) 철수: 어제 너무 피곤했죠?
민아: 예, 너무 피곤해서 세수만 하고 그냥 잤어요.
(是啊, 太累了所以洗漱完就睡了。)

예문(29)에서 민아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세수만 하고 잤다고 한다. 여기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붙여 그대로 잤다는 상태를 강조한다. 즉, 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수만 하고 '그 모양대로' 잤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은 발화 강조 기능을 한다.

(30) 길영: 지난번에 가져간 책 다 읽었으면 가져 와. 책을 빌려 가면
그냥 떼어들 먹으려 드니, 원...
(上次借你的書看完了的話就還回來, 借了書怎麼就賴著不還了呢...)

경민: 아니, 형두, 떼어 먹긴... 곧 갖다 드릴게요. 아직 끝내지 못했지만 거의 다 읽었어요.

예문(30)에서 길영은 경민에게 지난번에 빌린 책을 가져오라고 한다. 길영은 경민이 책을 빌려가서 계속 반납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여기서 '그냥'은 통사적으로 보면 '그런 모양으로 줄곧'의 뜻이고 화용적으로 부사어 담화표지로 보면 '그냥'을 사용하여 화자 길영의 불평 태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은 불평 태도 기능을 한다.

(31) 철수: 운동을 좋아해?

민아: **그냥**.

(不大喜歡。)

예문(31)에서 철수는 민아에게 운동을 좋아하느냐를 물어본다. 민아는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으로 대답한다. 이 '그냥'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지만 '그냥'으로 대답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해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은 부정 기능도 한다.

(32) 민아: 혹시 여자 친구 있어요?

철수: 왜 물어?

민아: **그냥**... 궁금해서요...

(那個...就是好奇而已。)

예문(32)에서 민아는 철수에게 여자 친구 있냐고 물어본다. 철수는 다시 왜 묻느냐고 되묻는다. 민아는 부끄러워서 그 이유를 못 찾아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사용하여 시간을 번다. 그 다음에 '궁금해서요'라고 대답을 한다. 따라서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은 시간 벌기 기능, 즉 망설임 기능을 한다.

이상 부사어 담화표지로서의 '그냥'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기능

분류	기능	예시
담화 진행상 나타나는 기능	화제 호응하기	가: 제가 다 할 테니까 쉬기만 하세요. 나: 진짜? 아니, 왜? 가: 그냥... 나: 그냥? <u>그냥</u> 이 어딴어?
화자 태도를 나타내는 기능	응답 회피 (얼버무리며 넘어가기)	가: 여기서 뭐 해? 나: 그냥 뭐...
	발화 약화	급한 일이 아니니까 그냥 내일 해도 돼.
	발화 강조	너무 피곤해서 세수만 하고 그냥 잤어.
	불평 태도	하루 종일 그냥 울고만 있어. 짜증나!
	부정 기능	가: 사과를 좋아해? 나: 그냥...
	시간 벌기(망설임)	가: 왜 물어? 나: 그냥...궁금해서요...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아니', '좀', '그냥'은 통사적으로 부사로 보면 실제 담화에서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즉 부사어 담화표지로서의 '아니', '좀', '그냥'은 실제 담화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사어 담화표지는 완전히 원래의 의미를 다 상실하고 담화표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원래의 어휘 의미에서 변이되는 경우도 있다.

3. 중국 내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현황

3.1. 한국어 교재 분석

중국 내 한국어 담화표지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대표적인 교재,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의 『韓國語教程』 1-6, 그리고 북경대학교출판사의 『標準韓國語』 1-3을

중심으로 교재 분석을 한다. 분석의 결과 둘 교재에는 담화표지의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은 교재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16> 한국어 교재에서의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

교재 담화표지	『韓國語教程』	『標準韓國語』
아니	아니요 不, 不是	아니다:[形]不是 안:[副]아니의略詞 不, 沒
좀	조금 一點兒	조금:[副]稍微
그냥	없음.	없음.

이 표에 따라 『韓國語教程』에서는 부사 '아니'는 '아니요'의 형식으로, '좀'은 원형 '조금'의 형식으로 '그냥'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품사 유형도 설명을 안 하고 중국어로 번역만 제시한다. 『標準韓國語』의 경우, 교재에서는 부사 '아니'는 '아니다', 그리고 '안'의 형식으로, '좀'은 '조금'의 형식으로, '그냥'은 언급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기술되어 있다. 품사 유형을 붙이고 있고 중국어 번역으로 제시한다.

사실,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은 『韓國語教程』과 『標準韓國語』에서 다양한 기능으로 등장하지만 교재에는 특별히 설명이 없고 번역만 제공하고 구체적인 사용 원리나 기능 해석이 없다. 『韓國語教程』의 경우, 『韓國語教程』 1-3에는 중국어 번역본이 있는 반면에 『韓國語教程』 4-6에는 중국어 번역본이 없다. 교사까지 설명을 하지 않으면 학습자가 스스로 문맥에 따라 그 부사어 담화표지의 뜻을 추측하게 되거나 통사적 의미에 따라 문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는 부사어 담화표지를 교수하는 데에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2.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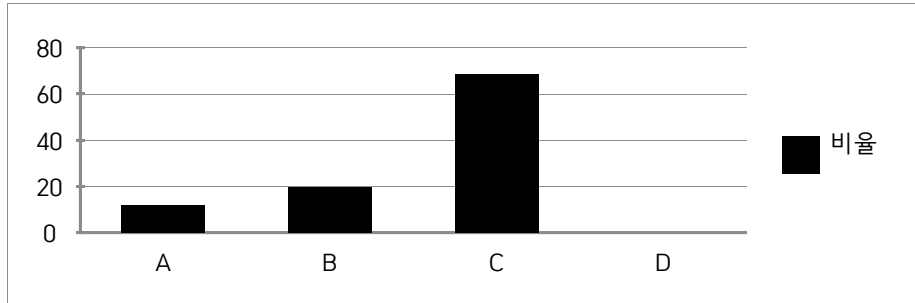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실태를 보다 전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2014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1월 20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중국인 고급 학습자 51명을 대상으로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수업 현황 및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사어 담화표지의 이해와 사용

조사는 먼저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에게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96.1%의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고 92.2%의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를 학습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부사어 담화표지 학습 경력 및 경로

부사어 담화표지 학습 경력 및 경로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결과에 따라 단 17.6%의 중국인 학습자는 중국에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공부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 내 한국어 교육에서는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 경로의 결과에 따라 단 11.8%의 중국인 학습자는 수업에서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학습한다고 하였고 19.6%의 학습자는 사전을 찾으면서 학습한다고 하였다. 나머지 68.6%의 중국인 학습자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이나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에 따라 스스로 학습한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하여 중국 내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를 교육하는 데에 교사의 역할이 약하고 학습자는 수업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를 학습하는 것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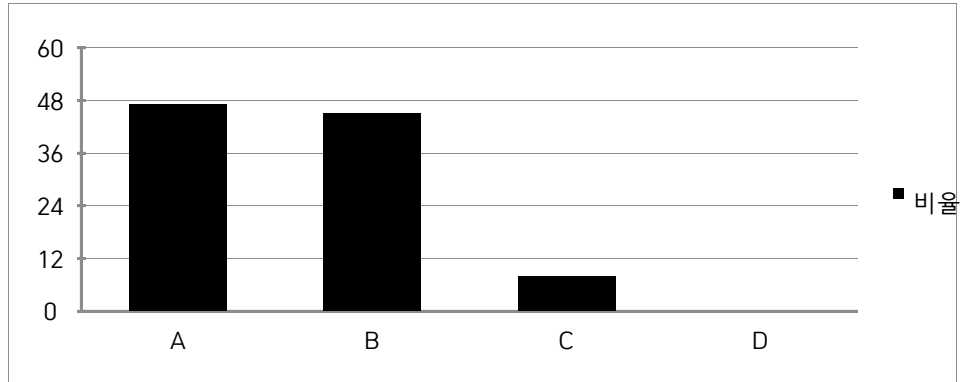
[그림 3] 담화표지 학습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⁷⁾

(3) 중국 내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 방법

중국 내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수 방법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47.1%의 중국인 학습자는 교사가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다고 하였다. 45.1%의 중국인 학습자는 교사가 부사어 담화표지의 통사적 의미만, 즉 부사로서의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사가 부사어 담화표지의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의미를 다 분석하고 예문을 들어 설명한다는 것을 선택한 중국인 학습자는 단 7.8%에 그쳤다. 이 결과는 다시 한번 중국에서의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많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7) A~D 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공부했다.
- B. 사전이나 인터넷을 찾으면서 혼자 공부했다.
- C.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했다.
- D.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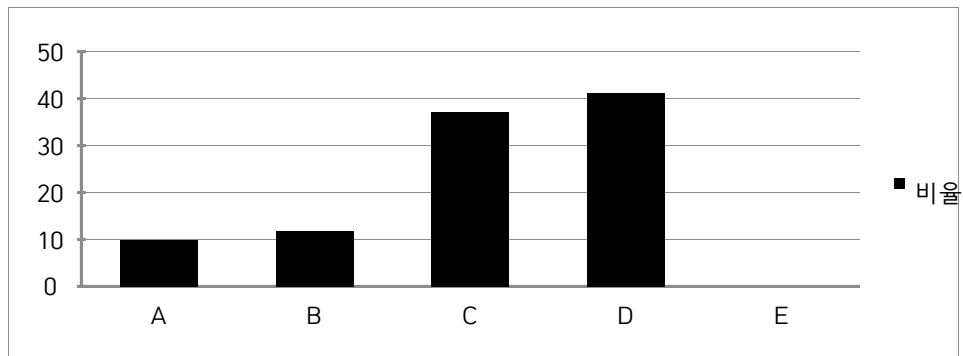
[그림 4]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⁸⁾

(4) 부사어 담화표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원인

부사어 담화표지가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단 9.8%의 중국인 학습자는 배운 적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였고, 11.8%의 학습자는 기능이 같은 담화표지가 많아서 어렵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37.2%의 학습자는 부사어 담화표지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잘 몰라서 어렵다고 하였고, 41.2%의 학습자는 담화에서 나오는 부사어 담화표지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어렵다고 하였다. 즉 대부분의 학습자가 실제 담화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A~D 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 B. 부사어 담화표지의 통사적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했다.
- C. 부사어 담화표지의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의미를 다 설명하고 예문을 들어 설명했다.
- D. 기타().



[그림 5] 부사어 담화표지 어려워하는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⁹⁾

(5) 통사적 의미 및 담화적 의미 간의 차이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부사 '그냥'은 부사로서 사용할 때와 담화표지로서 사용할 때 그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조사하였다. 58.8%의 중국인 학습자는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였고 41.2%의 학습자는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결과는 또 다시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 A~E 문항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배워 본 적이 없다.
- B. 뜻이 같은 부사어 담화표지가 많다.
- C. 부사어 담화표지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잘 모른다.
- D. 부사어 담화표지가 담화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 E. 기타().

Ⅲ.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사용 양상 분석

1.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기능에 대한 조사

본고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사용 양상을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2014년 12월23일부터 2015년 1월20일까지 중국인 학습자 51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2015년 1월15일부터 1월26일까지 한국인 모어 화자 20명에게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1.1. 조사 참여자 정보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담화적 기능을 교수하고자 하는 본고의 조사 대상은 한국어 고급 수준(한국어능력시험 TOPIK 기준)의 중국인 학습자로 설정하였다. TOPIK 시험 고급 수준의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실제 담화 능력은 고급 수준에 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 한국어 고급 수준인 중국인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학습자의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7> 조사 참여자 정보

분류	중국인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인수	51명	20명
성별	남자 25명, 여자 26명	남자 10명, 여자 10명
한국어 학습 기간	4년 이상	해당 안 됨
한국어 수준	고급 (TOPIK 고급)	해당 안 됨

한국 거주 기간	6개월 이하	17명	해당 안 됨
	6개월-12개월	17명	
	12개월 이상	17명	

첫째,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두 4년 이상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급 학습자이다¹⁰⁾. 초, 중급 학습자보다 고급 학습자가 실제 담화 능력이 더 우수하고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어 고급 수준인 중국인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모두 중국 대학이나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웠고 지금 한국에서 유학이나 교류 중인 중국인 학습자이다. 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 범위가 중국에서의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현황과 교수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의 한국어 학습 기관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18> 조사 참여자의 한국어 학습 기관

한국어 학습 기관	인수
대련외국어대학교	13
산둥대학교	12
북경언어대학교	6
연변대학교	15
중앙민족대학교	5

셋째,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에 대한 언어 환경의 영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고의 연구 참여자는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한다. 즉, 한국 거주 기간 6개월 이하의 학습자는 17명이고 6개월-12개월의

10) 예비 조사를 통하여 초, 중급 학습자는 한국어 어휘량이 부족하여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일상대화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본 연구에서는 일부 초, 중급 학습자에게도 실시하였지만 언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또한 부사어 담화표지는 자연스러운 담화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어야 그 사용 양상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대상은 한국어 고급 수준인 중국인 학습자로 선정하였다.

학습자는 17명이고 12개월 이상의 학습자는 17명이다.

넷째, 성별에 따라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성별 비율은 균등하게 하였다. 즉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남자 25명이고 여자 26명이고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는 남자 10명, 여자 10명이다.

다섯째,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는 주로 20대 사람이므로 본고에서 연구 대상의 나이는 20대 위주로 한다. 또한 연구 대상은 지금 한국에서 유학이나 교류 중인 유학생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한국인 모어 화자의 경우도 20대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으로 선정하였다.

1.2. 조사 방법 및 자료 구성

본 설문조사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문항 18개, 그리고 종합 문항 3개, 총 21개의 문항을 연구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 예시는 <표 19>와 같다. 앞에 II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중의 하나는 문장의 다른 성분에 독립적이고 필수 성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문장에서 담화표지가 없어도 문장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는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뿐만 아니라 발화의 유창성¹¹⁾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고의 설문조사는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을 정답으로 하고 다른 것을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것을 오답으로 처리한다. 이는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뚜렷하게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¹²⁾.

11) 배두본(2000)에서는 유창성(fluency)이란 목표어를 모국어로 습득한 사람들과 같은 이해와 표현의 정도에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은 간에 영어를 이해하여 막힘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능력이나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12) 본고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부록 1'에서 제시하였다.

<표 19> 설문지의 구성과 문항 예시

구 성	부사어 담화표 지	교찰 기능	문항 예시
I 교 수 학 습 실 태 13)	-	-	<p>* 수업 시간에서 교사는 부사어 담화표지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p> <p>A.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p> <p>B. 부사어 담화표지의 통사적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했다.</p> <p>C. 부사어 담화표지의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의미를 다 설명하고 예문을 들어 설명했다.</p> <p>D. 기타 ()</p>
II 학 습 자 사 용 능 력	아니	화제 시작	<p>* 화제 시작 기능</p> <p>희정: 내가 어제 강남에 가서 쇼핑을...</p> <p>혜영: (), 이것 좀 봐 봐. 이게 뭐야?</p> <p>A. 자. B. 아니. C. /⁽¹⁴⁾.</p>
		실수 교정	
		부정	
		수용불가 태도	
		응답 회피	
		발화 유도	
	좀	공손 태도	<p>* 공손 태도 기능</p> <p>철수: 저기요.</p> <p>아주머니: 예, 고객님. 뭘 도와 드릴까요?</p> <p>철수: 여기 물티슈 () 주세요.</p> <p>A. 좀. B. /. C. 그냥.</p>
		발화 강조	
		발화 약화	
		응답 회피	
		부정	
	그냥	화제	<p>* 응답 회피 기능</p> <p>철수: 너랑 상관도 없는데 니가 왜 갔어? 왜?</p> <p>현우: () 뭐...</p> <p>A. 그거. B. 그냥. C. /.</p>
		호응하기	
		응답 회피	
		발화 약화	
		발화 강조	
		불평 태도	
		부정	
		시간 벌기	

1.3. 자료 분석

설문조사를 한 후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문항을 분류하고 각각 분석하였다. 21개 문항 중의 종합문항(19번부터 21번까지)은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분석 결과에 넣지 않았다. 즉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부분의 문항은 6개이고 '좀' 부분의 문항은 5개이고 '그냥' 부분의 문항은 7개이다.

1.3.1.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사용 양상 조사 결과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총 6개의 문항이 있다. 본 고에서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를 선택하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부분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0>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부분의 조사 결과

기능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
화제 시작 (주의 집중)	45.1%	100%
실수 교정	84.3%	100%
부정	100%	100%
수용불가 태도	49.0%	95%
응답 회피	37.3%	95%
발화 유도	25.5%	90%

<표 20>에 따르면 한국인 모어 화자가 거의 다 정답을 선택한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는 '아니'의 기본적인 기능인 '부정 기능'을 빼고 정답률은 낮은 편이다. 이 결과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각 기능

13)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에서 이 부분이 없다.

14) 설문지에 있는 '/' 부호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에 대한 정답률은 '부정 > 실수 교정 > 수용불가 태도 > 화제 시작 > 응답 회피 > 발화 유도' 순이다.

또 언어 환경의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에 대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여 중국인 학습자 내부에서도 비교를 하였다. 이는 한국 거주 시간에 따라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 - '아니' 부분

한국 거주 기간	인수	정답률 ¹⁵⁾
6개월 이하	17명	42.2%
6개월-12개월	17명	55.9%
12개월 이상	17명	72.5%

<표 21>에 따르면 한국 거주 기간 6개월 이하의 학습자는 정답률이 가장 낮고 12개월 이상의 학습자는 정답률이 가장 높다. 이 정답률들은 큰 차이가 아니지만 한국에 더 오래 있으면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에 대한 숙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각 기능은 한국 거주 기간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여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각 기능별의 정답률이 다음과 같다.

<표 22>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아니'의 각 기능의 정답률

기간 기능	6개월 이하	6개월~12개월	12개월 이상
화제 시작	35.3%	47.1%	52.9%
실수 교정	82.4%	88.2%	82.4%

15) 이 정답률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6개월 이하의 학습자의 경우, 17명 학습자가 총 102개의 문항을 하였다. 그 중에 맞는 것, 즉 '아니'를 선택한 것은 총 43개이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학습자의 정답률은 43/102, 즉 42.2%이다. 이하 부사어 담화표지 '좀'과 '그냥'의 정답률은 이와 같은 계산법으로 하였다.

부정	100%	100%	100%
수용불가	23.5%	47.1%	76.5%
응답 회피	11.8%	35.3%	64.7%
발화 유도	0%	17.6%	58.8%

<표 22>에 따르면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부정 기능, 실수 교정 기능, 화제 시작 기능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정답률이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수용불가 태도 기능, 응답 회피 기능, 발화 유도 기능의 정답률이 큰 차이가 보였다. 이는 실제 생활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수용불가 태도 기능, 응답 회피 기능, 발화 유도 기능은 부정 기능, 실수 교정 기능, 화제 시작 기능보다 덜 많이 노출하고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들은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다.

1.3.2.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사용 양상 조사 결과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총 5개의 문항이 있다. 본고에서는 부사어 담화표지 '좀'을 선택하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좀' 부분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3> 부사어 담화표지 '좀' 부분의 조사 결과

기능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
공손 태도	96.1%	100%
발화 강조	68.6%	95%
발화 약화	88.2%	100%
응답 회피	45.1%	100%
부정	43.1%	95%

<표 23>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잘하는 '좀'의 기능은 공손 태도 기능이고 정답률은 96.1%이다. 이와 달리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잘 못하는 '좀'의 기능은 부정 기능이고 정답률은 43.1%에 그쳤다. 즉 정답률은 '공손

태도 > 발화 약화 > 발화 강조 > 응답 회피 > 부정'이다.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다른 기능도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정답률이 낮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 내부의 정답률의 차이를 찾으려 하여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표 24>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 - '좀' 부분

한국 거주 기간	인수	정답률
6개월 이하	17명	57.6%
6개월-12개월	17명	58.8%
12개월 이상	17명	88.2%

<표 24>에 따르면 한국 거주 시간 6개월 이하의 학습자와 6개월-12개월의 학습자의 정답률은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한국 거주 시간 12개월 이상의 학습자의 정답률은 6개월 이하의 학습자와 6개월-12개월의 학습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뚜렷하다. 이는 다시 한국 거주 시간의 차이는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각 기능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각 기능별의 정답률이 다음과 같다.

<표 25>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좀'의 각 기능의 정답률

기간 기능	6개월 이하	6개월~12개월	12개월 이상
공손 태도	88.2%	100%	100%
발화 강조	58.8%	58.8%	88.2%
발화 약화	76.5%	88.2%	100%
응답 회피	35.3%	23.5%	76.5%
부정	29.4%	23.5%	76.5%

<표 25>에 따르면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응답 회피 기능과 부정 기능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다. 이는 '좁'의 응답 회피 기능과 부정 기능은 실제 담화에서 노출 빈도가 낮고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들은 기회가 더 많고 숙달도도 높기 때문이다.

1.3.3.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사용 양상 조사 결과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총 7개의 문항이 있다. 본 고에서는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선택하는 것을 정답으로 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 부분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6>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 부분의 조사 결과

기능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정답률
화제 호응하기	41.2%	100%
응답 회피	86.3%	100%
발화 약화	82.4%	100%
발화 강조	39.2%	90%
불평 태도	49.0%	95%
부정	70.6%	100%
시간 벌기	84.3%	100%

중국인 학습자가 보편적으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모어 화자가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는 '그냥'의 기능에 대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잘하는 '그냥'의 기능은 '응답 회피' 기능과 '시간 벌기' 기능이고 가장 잘 못하는 기능은 '발화 강조' 기능이다. 즉 정답률은 '응답 회피 > 시간 벌기 > 발화 약화 > 부정 > 불평 태도 > 화제 호응하기 > 발화 강조'이다.

또 앞의 '아니', '좁'과 같이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정답률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의 정답률 - '그냥' 부분

한국 거주 기간	인수	정답률
6개월 이하	17명	58.1%
6개월-12개월	17명	59.7%
12개월 이상	17명	76.5%

한국 거주 기간 6개월 이하의 학습자와 6개월-12개월의 학습자의 정답률은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한국 거주 기간 12개월 이상의 학습자의 정답률은 6개월 이하의 학습자와 6개월-12개월의 학습자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 뚜렷하다. 이는 한국에 더 오래 있으면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더 잘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각 기능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각 기능별의 정답률이 다음과 같다.

<표 28>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그냥'의 각 기능의 정답률

기간 기능	6개월 이하	6개월~12개월	12개월 이상
호응하기	47.1%	11.8%	64.7%
응답 회피	76.5%	88.2%	94.1%
발화 약화	70.6%	76.5%	100%
발화 강조	17.6%	29.4%	70.6%
불평 태도	47.1%	58.8%	41.2%
부정	64.7%	76.5%	70.6%
시간 벌기	82.4%	76.5%	94.1%

<표 28>에 따르면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호응 기능, 발화 강조 기능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담화에서 노출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숙달도가 낮다.

이상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는 부사어 담화표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즉 그 부사어 자체의 뜻과 의미 같은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다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 한국인 모어 화자는 정답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는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정답률은 낮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 거주 기간별 조사 결과에 따라 6개월 이하의 학습자와 6개월-12개월의 학습자간의 정답률 차이가 크지 않지만 12개월 이상의 학습자의 정답률은 다른 두 집단보다 높다. 또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각 기능은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정답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제 담화에서 많이 노출하는 기능은 한국 거주 기간 간의 관련성이 적고 노출 빈도가 낮은 기능은 한국 거주 기간과 관련성이 크다. 즉 언어 환경은 노출 빈도 낮은 기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이상의 조사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 화자처럼 부사어 담화표지를 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일 뿐만 아니라 언어의 환경은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하는 데에 영향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를 교육할 때 이상 특징을 고려한 교육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사후 인터뷰

이상 조사의 결과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기능을 왜 잘 사용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5년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조사에 참여했던 중국인 학습자 3명¹⁶⁾에게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학습자가 문항에 맞으면 왜 맞는지, 틀리면 왜 틀리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원리를 얼마나 아는지를 살펴보았다.

16) 사후 인터뷰 참여자는 A, B, C로 표시.

2.1. 인터뷰 참여자 정보

사후 인터뷰에 참여한 3명의 중국인 학습자는 조사에서 정답률이 낮은 A와 C, 그리고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B이다. 구체적인 사후 인터뷰 대상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9> 사후 인터뷰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한국 거주 기간	한국 내 기관	한국어 학습 기관
A	남	7개월	경희대학교	연변대학교
B	여	15개월	서울대학교	대련외국어대학교
C	여	2개월	이화여자대학교	산둥대학교

2.2.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인터뷰 분석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의 사용 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틀린 것뿐만 아니라 맞는 문항에 대해서도 그 선택 이유를 인터뷰 참여자에게 물었다. 이는 언어 습관의 영향을 피하고 학습자가 그 구체적인 사용 원리를 아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A. 화제 시작(주의 집중) 기능

문항 1

희정: 내가 어제 강남에 가서 쇼핑을...

혜영: (), 이것 좀 봐봐. 이게 뭐야?

A. 자. B. 아니. C. /

이 문항에서 혜영은 희정의 발화를 막지르고 발언권을 가져오고 있다. 100%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아니'를 선택하였고 이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가 주의 집중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 A, B,

C는 모두 '자'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

Q17): 여기 왜 '자'를 선택했어?

A: '자'::는 상대방의 주의를= 그::: 상대방의 주의력을 전이시킬 수 있잖아.

Q: 그러면 '아니'는 어때?

A: '아니'?(-) '아니':는 좀 이상하지 않아? -그거 부정(...) 아닌가? <vocal desc='웃음'>

Q: '아니'는 부정 기능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A: 아니.(-) 그래도 이런 거:: 안 배웠어. 이렇게 쓰는 거.(...)

<인터뷰 참여자 B>

Q: 왜 '자'를 선택했어?

B: '자'는= '자'는 말의 맨 앞에(...) 무슨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음::: 알려줄 때 쓰는 거라고 (...) 맞지? <vocal desc=웃음>

Q: '주의 집중' 기능을 하지?

B: 응응 맞아 맞아. <vocal desc=웃음>

Q: '아니'도(-) 주의 집중 기능 있는데 원래 알고 있었어?

B: 그래? 그거는 몰라.(...) 그러면 '자'랑 차이가 뭐야? '자'는 안 돼?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 A와 B는 '아니'의 화제 시작 기능, 즉 주의 집중 기능을 모르고 대신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자'를 선택하였어도 맞는지 확신하지 않았으며 '아니'와 '자'의 차이가 잘 몰랐다. 이는 중국에서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B. 실수 교정 기능

17) 연구자는 'Q'로 표시.

문항 2

아버지: (...) 요즘 젊은이들이 무조건 새것만을 좇는 경향에 두려움마저 생겨서 그런다.

철호: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경쟁사회에서 이기려면,
() 그것보다 국제 사회에 보조를 맞추려면 우리가 배워서 알아
두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걸요.

A. 아니. B. /. C. 심지어.

이 문항은 아버지가 철호가 옛것을 무시하고 새것만 좇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고 철호는 자기가 왜 이런지를 아버지에게 설명하는 장면이다. 철호는 그 이유가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것보다 국제 사회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의 '아니'는 자기가 앞에서 말한 실수를 교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조 기능도 한다. 즉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것보다 국제 사회에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 문항에 대한 참여자 C는 '심지어'를 선택하였고 A와 B는 '아니'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C>

Q: 여기 '심지어'를 선택했어. 왜?

C: 뒤에(-) '그것보다' 있잖= '심지어::'는 '甚至'(...). '무엇무엇보다 더'의 뜻이(...)

Q: 중국어 번역에 의해 선택한 거지?

C: 응.

Q: '아니'는 왜 안 돼?

C: 사실(-) 내가 '아니'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웬지 '심지::어'가 더 나을 것 같애.

<인터뷰 참여자 B>

Q: '아니:'를 선택한 이유 뭐야?

B: 여기 앞에(-) 잘 못 말한 것 같애. 그래서 앞에 말한 거를 부정하고:: 다시 말했어, 정답을.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 B는 '아니'의 이 기능을 잘 파악하는 반면에 참여자 C는 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자기의 모국어, 즉 중국어 번역의 영향으로 중국어 '甚至'와 같은 뜻인 '심지어'를 선택하였다. 또한 참여자 C는 '아니'도 맞는 것 같지만 대화를 통하여 왜 맞는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중국어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학습자가 단순히 그 단어나 구의 중국어 번역 때문에 사용하며 선택형 문항을 대답할 때도 중국어 번역과 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C. 부정 기능

문항 3

철수: 무슨 일 있니?

현우: () 아무 일도 없어.

A. /. B. 아니. C.아.

이 문항에서 철수는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현우는 그 질문에 대한 부정 대답, 즉 아무 일도 없다고 대답한다. 부정 기능은 '아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가 모두 정답을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

Q: 여기의 '아니'는 어떤 기능 하고 있는지 생각해?

B: 부정지. 물::음 대한 부정 답을(...)

인터뷰의 결과 참여자가 모두 담화표지 '아니'의 부정 기능을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D. 수용불가 태도 기능

문항 4

철수: 저, 오늘 이만 가 봐야겠습니다. 차를 잘 마셨습니다.

사모님: () 왜 벌써 가세요? 선생님 만나 뵙고 가지지 그래요.

A. 아니. B. /. C. 뭐.

이 문항은 철수가 차를 잘 마시고 이만 가 봐야겠다고 사모님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사모님은 철수가 가고 싶다는 일에 대한 이해불가 하고 놀라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를 사용하였다. 95%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아니'를 선택하였지만 49.0%의 중국인 학습자가 '아니'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는 '뭐'를 선택하였고 B는 '아니'를 선택하였고 C는 '/'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

Q: 이 문항 왜 '뭐'를(...)

A: 음:: 앞에 철수가 가고 싶잖아. 사모님이 놀라=의아스럽다?<vocal desc=웃음> 그래서 '什麼! 幹嘛要走' 이렇게 말했어.

Q: 그래서 '뭐'(-)로 놀라운 태도 표현한다고?

A: 응.

<인터뷰 참여자 B>

B: 여기 '아니'(-) 그:: 사모님의 심정= 그 태도를 놀랍다 그런 심정을 표현(...)

Q: '아니'가 이런 기능 있는지 알고 있지?

B: 네.

<인터뷰 참여자 C>

Q: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

C: 응::사실 내가 세 개 다 맞다고 생각해. 근데::차이가 뭔지= 그 '뭐'와 '아니'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아니(-) 몰라. 차라리 여기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맞잖아.

위와 같이 참여자 A는 또 중국어에 놀랍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什麼'로 번역하여 '뭐'를 선택하였다. 참여자 B는 '아니'의 수용불가 태도 표현 기능을 원래 알고 있었다. 참여자 C는 '아니'와 '뭐'가 다 정답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해 차라리 '/'를 선택하였다. 괄호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도 문장이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E. 응답 회피 기능

문항 5

철수: 나 결혼했어!

현우: 진짜? 야! 니가 정말... ()

철수: 왜.

현우: 왜? 왜 얘기 안했어!

A. /. B. 아니. C. 됐어.

이 문항에서 철수가 자기 결혼했다고 하고 현우는 이 소식 처음 들어서 깜짝 놀랐다. 철수에게 왜 알려주지 않았다고 캐묻고 싶지만 말문이 막혀 뒷말을 잇지 못한다. 철수가 다시 '왜'라고 물어보고 나서 되물어본다. 이 문항에는 한국인 모어 화자 단 1명이 '됐어'를 선택한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가 '/'와 '됐어'를 선택한 사람이 많았다. 인터뷰 참여자 A는 '됐어'를 선택하고 B와 C는 '/'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

Q: 여기 '됐어'를 선택한 이유 뭐야?

A: 그냥(-) 이 화제를 그만하고 싶어서= 음:: 상대방이 결혼하지만 알려주지 않아서(-) 기분이 안 좋고(...) 좀 화난 느낌?

Q: 발화 중지하고 싶다는 뜻이지?

A: 응.

Q: 그럼 왜 다른 걸 안 선택했어? '/'를 왜 안 선택했어?

A: 음::이것도 되는데 '됐어'를 사용하고 더 나을 것 같애.

Q: 그러면 '아니'는?

A: '아니::'도 괜찮은 것 같은:데=아 몰라(...)<vocal desc=웃음>

<인터뷰 참여자 B>

Q: 여기 왜 '/'를 선택했어?

B: 그냥 여기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Q: '아니'는 틀린다고 생각해?

B: 아니.(-) 근데::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쓰면은= 맞는지(...)

<인터뷰 참여자 C>

Q: 여기 왜 '/'를 선택했어?

C: 말이 통하잖아. 이거 선택하면.

Q: 다른 거 선택하면 말이 안 통해?

C: 글썄(...) 통::한 것 같애. 근데(-) '/'를 선택하면 무조건 맞잖아. 다른 거는(...)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 A, B, C는 모두 '아니'를 선택하여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를 선택하지 않았다. 이는 학습자가 여기서 '아니'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였다. 게다가 이 대화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더라도 발화가 매끄럽고 말이 통하여 정확성을 위하여 차라리 '/'를 선택하였다.

F. 발화 유도 기능

문항 6

철수: 은영이 얘기 들었어?

현우: ()?

철수: 이혼했다며...

A. 뭐. B. 아니. C. 왜.

이 문항에서 철수가 현우에게 은영이 얘기 들었다고 물어본다. 현우가 그 얘기를 안 들어서 철수에게서 듣고 싶다. 한국인 모어 화자 단 2명은 '뭐'를 선택하였고 나머지 18명은 모두 '아니'를 선택하였다. 하지만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아니'를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단 25.5%이다. 참여자 A, B, C는 모두 '뭐'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

Q: 왜 '뭐'를 선택했어? 중국어로 번역해서?

B: 어? 응. 앞에 은영이 얘기 들었냐고 물어봤잖아. 그리고(-) 뒤에 그 얘기 말하잖아. 그래서 '뭐'를= '問他是什麼事兒'= '뭐'는 '什麼'(...)

Q: 여기 '아니'도 사용할 수 있는데.

B: 왜? 뒤에 대답 있는데. 그 얘기 뭔지 물어봐야 하잖아.

Q: 응. 근데 '아니'(-) 어조가 올라감으로써,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 (-) 부정도 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알고 싶다. 알려 줘'.= 이런 감정도 보여주는데(...)

B: 아, 그래?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아니(↗). 어! 맞아 맞아. 몰랐어 원래.

이는 또 중국어의 영향으로 학습자들이 '뭐'를 선택하였다. '뭐'를 선택하는 것은 오류가 아니지만 조사를 통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가 이런 호기심을 표현할 때 '아니'를 더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가 '아니'의 발화 유도 기능을 모르고 보수적으로 중국어 '什麼'와 대응하는 '뭐'를 선택하게 되었다.

2.3.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인터뷰 분석

A. 공손 태도 기능

문항 7

철수: 저기요.

웨이터: 예, 고객님. 뭘 도와 드릴까요?

철수: 여기 물티슈 () 주세요.

A. 좀. B. /. C. 그냥.

이 문항에서는 철수가 웨이터에게 물티슈를 달라고 한다. 여기서의 부사어 담화표지 '좀'은 공손 태도 기능을 한다. 한국인 모어 화자가 모두 '좀'을 선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 2명은 '/'를 선택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좀'을 선택하였다. 참여자 A, B, C도 다 '좀'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

Q: 여기서의 '좀'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해?

B: 음::자신을 낮춰= 웨이터한테 존경?(-) 그런 느낌.

Q: 자기의 공손 태도 표현하는 거지?

B: 맞아.

<인터뷰 참여자 C>

Q: 여기 '좀' 선택했잖아. 왜?

C: 평소 다 이렇게 쓰잖아. 상대방한테 존경 그런:: 태도? <vocal desc= 웃음>

Q: 아무것도 안 쓰면 어때?

C: 아무것도 안 써?(-) 그렇게 해도 되는데 '좀' 쓰면 더 좋을 것 같애 (...) 자기의 존경.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가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공손 태도 기능을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평소의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B. 발화 강조 기능

문항 8

철수: 어머니, 아까부터 뭘 그리도 골똘히 생각하세요?

어머니: 애, 조용히 () 해라. 네 색시 될 사람하고 너하고 궁합이 어떤지 알아보려는 거야.

A. /. B. 줌. C. 제발.

이 문항에서는 아들 철수가 어머니에게 무엇을 생각하시냐고 물어본다. 어머니가 궁합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철수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여기서의 부사어 담화표지 '줌'은 강조 기능을 한다. 즉 '조용하다'를 강조하는 것이다. 단 한 명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를 선택한 반면에 31.4%의 중국인 학습자가 '/'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와 B는 '줌'을 선택하였고 참여자 C는 '/'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

Q: 여기 왜 '줌' 선택해?

B: '조용히 줌 해라' 평소에 많이 들었는데(-) 한국 사람한테서. 다 이렇게 써.

Q: 그러면(-) 이 '줌'은 어떤 기능= 어떤 역할인지(...)

B: <vocal desc=웃음> 몰라.

<인터뷰 참여자 C>

Q: 이 문항 '줌'이 안 돼?

C: 되지.<vocal desc=웃음> 한국 사람 보통 다 이렇게 사용할 것 같애. 근데(-) 사실 내가 이 '줌'을 왜= 왜 쓰는지 잘 몰라.

Q: 사용하면 차이가 뭔지 몰라?

C: 응, 안 써도 되는데:: 쓰면 왜 쓰= 작용이 뭔지(...)

대화를 통하여 참여자 B와 '죤'을 안 선택한 C는 모두 '죤'이 정답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그 사용 원리, 즉 여기의 '죤'의 역할을 잘 알지 못하였다. 사용 원리를 모르지만 한국 사람에게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스스로 한국인처럼 사용한다. 이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것이다.

C. 발화 약화 기능

문항 9

철수: (모임) 모래 저녁 시간이 어떻습니까?

현우: 그 날은 () 바쁘네요. 하지만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A. 많이. B. /. C. 죤.

이 문항에서는 철수는 현우에게 모임을 모래 저녁에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본다. 현우는 그 날은 바쁘지만 빨리 가겠다고 대답을 한다.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죤'은 발화 약화 기능을 한다. 즉 자기가 바쁘다는 것을 약화하고 발화를 부드럽게 만들어 한다. 88.2%의 중국인 학습자가 '죤'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와 C는 '죤'을 선택하였고 참여자 A는 '많이'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

Q: 여기 왜 '많이'를(...)

A: 내 생각은(-) 여기 '많이'는 '아주' '매우'랑 비슷해. 현우가 그날 엄청 바쁘지만 빨리 가겠다:라는(...)

Q: 왜 '죤'이 안 돼?

A: '죤':도 되는데 앞에= 뒤에 '하지만' 있잖아. 그러면 앞에 무조건 내가 진:짜진짜 엄청 바쁘다 해야(...)

<인터뷰 참여자 B>

Q: 여기의 '죤'은 어떤 기능인지(...)

B: 앞에 그거랑 같이=뭐::존경 그런 느낌? 자기가<vocal desc=웃음>아 설명 못 해.

대화를 통하여 참여자 A도 실제로 '좀'을 사용하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 전환을 나타내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정도가 높은 '많이'를 사용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여자 B는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좀'은 앞의 문항과 같이 공손 태도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의 '좀'은 자기의 발화를 부드럽게 하는 발화 약화 기능을 한다. 즉, 정답을 선택하였어도 그 사용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D. 응답 회피 기능

문항 10

철수: 노래 한 곡 할래?

현우: (하고 싶지 않다)아, 나 화장실 ()...

A. /. B. 잠깐. C. 좀.

이 문항에서는 철수가 현우에게 노래 한 곡 할 것이냐고 물어본다. 현우가 하고 싶지 않고 직접 거절하기도 부끄러워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것을 핑계로 한다.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좀'은 응답 회피 기능을 한다. 뒤에 있는 발화를 생략을 한다. 100%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좀'을 선택한 반면에 45.1%의 중국인 학습자가 '좀'을 선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 중에 '/'를 선택한 사람이 많다. 인터뷰 참여자 A와 C는 '/'를 선택하였고 참여자 B는 '좀'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

Q: '좀'을 선택했어.

B: 응. '좀'::은 '去一下廁所' 그 '一下'랑(-) 비슷해.

Q: 다른 역할::은?

B: 음::노래 안 하고 싶어. 거절을(...) 맞아?

<인터뷰 참여자 C>

Q: 왜 이거를(...)

C: 그냥::화장실 가고 싶다' 그 '가고 싶다'를(-) 생략하고(...)

Q: '좀'을 붙이면 안 돼?

C: 음::그래도 이렇게만 하면='좀'이 없이 해도 맞잖아.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 B는 부사어 담화표지 '좀'이 중국어 '一下'로 번역하여 선택하였고 또 화자 현우가 철수를 거절하고 싶어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하였다. 참여자 C는 B와 같이 현우가 거절을 하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화장실 뒤에 있는 것을 생략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의 '좀'의 기능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즉, 단순히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회피하고 싶어서 '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E. 부정 기능

문항 11

웨이터: 음식 맛이 괜찮으세요.

현우: 음...()...

A. 좀. B. 아니에요. C. 별로.

이 문항에서는 웨이터가 현우에게 음식 맛이 괜찮으냐고 물어본다. 현우가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접 맛이 없다고 하면 예의가 없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며 부사어 담화표지 '좀'으로 대답을 한다. 95%의 한국인 모어 화

자가 '좀'을 선택한 반면에 단 43.1%의 중국인 학습자가 '좀'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참여자 A는 '좀'을 선택하였고 참여자 B와 C는 '별로'를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

Q: 여기의 '좀'(...)

A: 맛없다 뜻이지. 직접 말하면(-) 실례할 것 같= 무리::할 것 같아서(-)
委婉地(완곡적으로) 말했어.

Q: 부정 대답을 하고 싶지만 '좀'::으로 완곡적으로 부정::의 태도를 표현하는
말이지?

A: 응.

<인터뷰 참여자 C>

Q: 왜 '별로'를(...)

C: '별로'는 '一般' 뜻이라서= '不怎麼樣'(...)

Q: 그러면 왜 '아니예요' 안 선택했어?

C: 앞에 '음' 있잖아. 그리고 직접 웨이터한테 '아니예요' 하면:: 매너 없
는 것 같애.

Q: 그::럼 '좀'으로 대답해도 되는데.

C: 좀? '좀'으로 하면 '좀 맛있어'도 가능하고 '좀 맛있어'도 가능하잖아?

Q: 아냐. 직접 부정 대답을 하면 앞에도 말했잖아. 매너 없어. 그래서 '좀'
'으로(-) 완곡적으로 부정을 하잖아.

C: 그래?(-) 그래도 맞는 것= 아니, '별로'가 더 뚜렷:하지 않아?

인터뷰 대화를 통하여 참여자 B는 '좀'으로 부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좀'으로 대답하면 직접 부정적 대답을 하는 것보다 더 완곡하고 한국인의 말하는 습관에 부합한다. 하지만 참여자 C는 이 기능을 잘 모르고 있었다. 참여자 C는 직접 부정 대답을 하면 예의가 없는 줄 알고 있어 '별로'로 대답을 하였다. 하지만 '별로' 자체가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 부사어 담화표지 '좀'보다 부정의 감정이 더 깊다. 참여자 C는 '좀'의 이 기능을 잘 몰라 '별로'를 선택하였다.

2.4.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인터뷰 분석

A. 화제 호응 기능

문항 12

철수: 제가 다 할 테니까 쉬기만 하세요.

민아: 아니, 왜?

철수: 그냥...

민아: 그냥? () 어딴어?

A. 이런 거. B. 그냥. C. 그런 거.

이 문항에서는 민아는 철수에게 자기가 쉬기만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철수는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으로 그 대답을 회피한다. 이때 민아가 다시 '그냥'으로 되물으면서 철수의 대답에 호응한다. 여기의 '그냥'은 화제 호응 기능을 한다. 100%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그냥'을 선택한 반면에 41.2%의 중국인 학습자가 '그냥'을 선택하였다. 그 중에 참여자 B는 '그런 거'를 선택하였고 참여자 A와 C는 '그냥'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

Q: 왜 '그런 거'를 선택했어?

B: 그::런 거는 앞에 그 민아가 쉬기만 하세요를= 아니, 앞의 말을 지칭하는 거야.

Q: 그럼 '이런 거'랑 '그런 거' 차이 있어?

B: 없어. 근데(-) 한국 사람 '그런 거'를 더 많이 쓸 것 같애.

Q: 만약에 여기 '그냥'을 사용하면 틀린다고 생각해?

B: 음::틀린 것 같애. 뒤에 그(-) '어딴어' 앞에(-) 명:사를 붙여야 돼. '그냥'은 부사(...)

Q: '그냥' 부사::라서 못 쓰는 말이야?

B: 응. 그럴 것 같애.

<인터뷰 참여자 C>

Q: 여기 '그냥'을 선택했는데 부사인데 여기서 쓸 수 있다 생각해?

C: 응. 이런 거 많이 있잖아. 부사지만 명사로(...)

Q: 그러면 여기 '그냥'의 기능(...)

C: 앞에(-) 다 '그냥' 있잖아. 철수가 '그냥' 대답해. 민아가 '그냥' 어땀어'. 딱 맞추::잖아.

Q: 서로 호응하지?

C: 호응?(-) 응.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 A는 '그냥'이 부사이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택한 '그런 거'도 다른 항목 '이런 거'와 차이가 없다고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해서 선택하였다. 참여자 C는 '그냥'이 담화에서의 호응 기능을 잘 알고 있어 이 문항에 대한 이해하기 쉽다.

B. 응답 회피 기능

문항 13

철수: 너랑 상관도 없는데 니가 왜 갔어? 왜?

현우: () 뭐...

A. 그거. B. 그냥. C. /.

이 문항에서는 철수는 현우에게 현우와 상관없는 일인데 왜 갔느냐고 물어본다. 현우가 그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 회피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사용한다. 즉, 여기의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은 응답 회피 기능을 한다. 86.3%의 중국인 학습자가 '그냥'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참여자 A, B, C는 모두 '그냥'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

Q: 왜 '그냥'을 선택했어?

B: 그냥(-) 대답을 안 하고 싶으면 '그냥'으로(...)

Q: '그냥'을 사용하면 대답을 안 해도 돼?

B: 응. 만약 내가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그 이유, 원인 안 알려주고 싶다. 이런 뜻이야.

Q: 대답을 안 하고 싶어서 '그냥'로= '그냥'으로 상대방 질문 회피하는 거지?

B: 응.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 항상 '그냥'을 써요.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 B는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응답 회피 기능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앞에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잘 하는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기능은 바로 응답 회피 기능이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 담화에서 응답 회피로서의 '그냥'을 사용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발화 약화 기능

문항 14

철수: 아니, 이거 꼭 오늘 해야 돼? 난 오늘 시간도 없는데...

현우: 급한 일이 아니니까 () 내일 해도 돼.

A. 그냥. B. /. C. 어차피.

이 문항에서는 철수는 자기가 오늘 시간이 없어 그 일을 꼭 오늘 해야 한다고 현우에게 물어보고 현우는 이 일이 급한 일이 아니어서 내일 해도 된다고 대답을 한다. 여기서의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은 그 일의 중요성을 약화하고 발화 약화 기능을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82.4%의 중국인 학습자가 '그냥'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는 '어차피'를 선택하였고 B와 C는 '그냥'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

Q: 여기 왜 '어차피'를 선택했어?

A: '어차피'는 '反正' 뜻이(...) '反正也不急, 明天再做也行' 뜻이(...)

Q: 그러면(-) 문장 맨 앞에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야?

A: 어?(-) 맞네. 그러::면 '그냥'을 선택해야='그냥' 정답이(...)

Q: '그냥'을 사용하면 어떤 느낌(...)

A: 그냥(-) 급한 일이 아:니다= 급하지 않아서 내일 해도 돼 그런(...)

<vocal desc='웃음'>

<인터뷰 참여자 B>

Q: 왜 '그냥'을 선택했어? '/'랑 차이 뭔지(...)

B: '이거 급하지 않다::'를 강조하고= 정말 급하지 않다. '그냥'을 붙이면 이 문장 더 유창할 것 같애. 그리고(-) 없으면 정말 급하지 않다 그 정도가 좀 부족해.

Q: 그 중요성을 약화하는 거지?

B: 네.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 A는 원래 '어차피'를 선택하였지만 인터뷰를 할 때 '그냥'을 선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용 원리를 잘 모르고 있었다. 참여자 B는 설명을 잘 못하였지만 인터뷰 대화를 통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발화 약화 기능을 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D. 발화 강조 기능

문항 15

철수: 이제 불 좀 그만 때 ()! 고기 다 탔잖아, 이미!

현우: 아, 미안해.

A. 제발. B. /. C. 그냥.

이 문항에서는 철수가 현우에게 불 좀 그만 때라고 한다. 고기가 이미 다 탔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사용하면 발화 강조의 기

능을 한다. 90%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그냥'을 선택한 반면에 39.2%의 중국인 학습자가 '그냥'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 B, C는 모두 '제발'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

Q: 여기 왜 '제발'을 선택했어?

B: '제발'은(-) '拜託' '拜託你把火滅了吧' 그런 뜻이= 강조의 느낌. 제발 (...)

Q: '그냥'을 왜 안 써?

B: '그냥'? '그냥' 쓰면(-) 무슨 뜻이야? 여기서.

Q: '그냥'도 발화 강조의 기능 해. '불 좀 그만 때' 이 말을 강조해.

B: 그래? 참 들었는데. 몰랐어 이거.

<인터뷰 참여자 C>

Q: '그냥' 이 담화표지가 발화 강조 기능 있는데 알아?

C: 발화 강조?

Q: 응. 예들면, 이 문항에서 '그냥'을 사용하면 발화의='불 그만 때' 이 말을 강조해.

C: 근데요(-) '제발'도 맞아. 아니야?

Q: 맞지. 근데 '그냥'도 그런 기능 해. 원래 알고 있었어?

C: 음(-) 몰라.

인터뷰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 B와 C는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이 발화 강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발'을 선택하였다.

E. 불평 태도 기능

문항 16

철수: 지난번에 가져간 책 다 읽었으면 가져 와. 책을 빌려 가면 ()
 떼어들 먹으려 드니, 원...
현우: 아니, 형두, 떼어 먹긴... 곧 갖다 드릴게요. 아직 끝내지 못했지만
 거의 다 읽었어요.
 A. /. B. 그냥. C. 계속.

이 문항에서 철수는 현우에게 지난번에 빌린 책을 가져오라고 한다. 철수는 현우가 책을 빌려가서 계속 반납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여기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사용하여 화자 철수의 불평 태도를 표현한다. 하지만 단 49%의 중국인 학습자가 '그냥'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참여자 A와 C는 '계속'을 선택하였고 B는 '그냥'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

Q: 여기 왜 '그냥'을 선택했어?
B: '그냥'은(-) 그런 상태로=그런 그런 모습?으로 계속하는 뜻이 있어. 여기 책을 빌려가서 그 빌려가서의 상태로(-) 유지하(...)
Q: 그러면 이거(-) '그냥' 화자의 어떤 감정 표현하다고(...)
B: (-)불만? 응::불만 그런 거.

<인터뷰 참여자 C>

Q: 여기 '그냥'을 선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C: 여기(-) '借了一直不還' 그 '一直' 뜻이어서 '계속' 선택했어. '그냥'은 (-) 안 될 것 같애.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애.
Q: 사실, 여기 '그냥' 사용하면 그 '一直' 뜻도 하고 화자의 불평 태도도 표현할 수 있어.
C: 불::편=평 태도?
Q: 응. 불평 태도. 불만 분노 못마땅(-) 그런 태도.
C: 아::그래.<vocal desc='웃음'> 잘 몰라.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 B는 '그냥'을 선택하였지만 '그냥'의 통사적인 의

미에 의하여 선택하였다. 좀 더 물어보면 심층적인 불평 태도의 느낌을 하게 되었다. 참여자 C는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불평 태도 기능을 전혀 모르
고 통사적인 의미가 비슷한 '계속'을 선택하였다.

F. 부정 기능

문항 17

철수: 이번 토요일 축구 경기 있대. 너 축구 좋아해?

현우: ().

철수: 음... 알았어. 나랑 한 번 같이 갈래?

현우: (안 가고 싶다)난... 토요일 약속 있는데.

A. 그냥. B. 응. C. 싫어.

이 문항에서 철수가 현우에게 축구를 좋아하냐고 물어본다. 또한 한 번 같이 갈 거냐고 물어본다. 여기서 긍정의 '응'으로 대답하면 뒤에서 핑계를 찾아 거절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직접 부정의 '싫어'를 대답하면 철수가 다시 같이 간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그냥'으로 대답하고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안 좋아하지도 않다는 뜻을 표현한다. 하지만 위의 맥락에서 '그냥'은 안 좋아한다는 쪽에 가깝다. 참여자 A, B, C는 모두 '그냥'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

Q: '그냥'으로 대답하면 무슨 뜻인지 생각해?

B: 음(-) 그냥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중간? 중간 정도?

Q: 그러면 긍정 느낌 더 많아? 아니면 부정 느낌 더 많아?

B: 부정.

Q: 왜?

B: 그= 만약 내가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좋아하면 직접 '좋아해', '네' 이렇게 할 거야. '그:냥'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뜻이 더 많지.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가 긍정이나 부정을 대신 '그냥'으로 대답하면 '그냥'이 표현하는 뜻을 잘 알고 있고 부정의 의미가 더 많은 것도 알고 있다.

G. 시간 벌기 기능

문항 18

민아: 혹시 여자 친구 있어요?

철수: 왜 물어?

민아: ()... 궁금해서요...

A. /. B. 그냥. C. 뭐.

이 문항에서는 민아가 철수에게 여자 친구 있냐고 물어본다. 철수는 다시 왜 묻느냐고 되묻는다. 민아는 부끄러워서 그 이유를 못 찾아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사용하여 시간을 벌다. 그 다음에 '궁금해서요'라고 대답을 한다. 84.3%의 중국인 학습자가 '그냥'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 B, C는 모두 '그냥'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C>

Q: 여기 '그냥' 선택했는데 왜?

C: 그냥(-)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Q: 뒤에 '궁금해서요' 있잖아?

C: 그거(-) 藉口(핑계)잖아. 처음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일단 '그냥'을 (...)

Q: 일단 시간을 벌고 답에(-) 藉口 찾아 대답하지?

C: 응. 사실 이거('/')를 선택해도 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이래도 돼.

인터뷰를 통하여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시간 벌기 기능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하여 '그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잘 모르고 있었고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2.5. 종합 문항의 인터뷰 분석

문항 19

존슨: 우리 동네 책방 아저씨는 나만 보면 어디 가느냐고 해요.

은영: 미장원 옆에 있는 책방 말입니까?

존슨: 예,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발 그런 질문은 하시지 말라고 한 마디 해 주었어요.

은영: (가)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다니. (나) 가벼운 인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가. A. 뭐. B. 아니. C. 왜.

나. A. 진짜. B. 그냥. C. /.

이 문항에서 존슨은 은영에게 책방 아저씨가 항상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불평하고 아저씨에게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하시지 말라고 한다. 은영은 먼저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를 사용한다. 또한 그 말은 심한 말이 아니고 가벼운 인사뿐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사용한다. 즉, 이 문항에서 '아니'는 수용 불가 태도 기능을 하고 '그냥'은 발화 약화 기능을 한다. 100%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는 '뭐+/ '를 선택하였고 B는 '아니+그냥'을 선택하였고 C는 '뭐+그냥'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

Q: 여기 중국어 '什麼'로 번역해서 선택한 거죠?

A: 응.

Q: 그러면 뒤에 왜 '그냥' 안 돼?

A: 아까 그거랑 똑같이(...) 아니(-) '그냥'도 되는데 차이 몰라.

<인터뷰 참여자 C>

Q: (가)에서 왜 '뭐'를 선택했어? '아니'는 안 돼?

C: 음:::뒤에 '뭐뭐 하시다니' 있어가지고 뭐 이해불가?(-) 이런 느낌. '아니'도 괜찮은데 '뭐'가 더 맞는 것 같애.

인터뷰를 통하여 참여자 A는 중국어의 영향으로 '뭐'를 선택하였다. 참여자 C는 '아니'도 괜찮지만 '뭐'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참여자 A는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발화 약화 기능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다. 즉 여기서 '그냥'을 사용하면 작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문항 20

영수: 다녀오겠습니다.

아주머니: (가) 벌써 나가세요?

영수: 볼 일이 (나) 있어요.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가. A. 뭐. B. 아니. C. 진짜.

나. A. 좀. B. 그냥. C. /.

이 문항은 영수와 아주머니의 대화이다. 아주머니는 영수가 이렇게 일찍 나가는 것에 대한 놀람다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를 사용하고, 영수는 아주머니에게 부드럽게 말을 하기 위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좀'을 사용한다. 즉 이 문항에서 '아니'는 수용불가 태도 기능을 하고 '좀'은 발화 약화 기능을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100%의 한국인 모어 화자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참여자 A, B, C도 모두 정답을 선택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A>

Q: 여기 왜 '아니'를 선택했어? 니가 보통 다 '뭐'를 선택했잖아.

A: <vocal desc='웃음'> 그래?(...) 아 나도 몰라. 비슷하잖아. 솔직히 말하면 요(-) '뭐'는 반말? 그런 느낌. 여기 뒤에 '세요' 있어서(...)

Q: 그러면 '아니'랑 '뭐'의 차이는(-) '뭐' 반말에서 사용하고 '아니'는 존댓말에 서?

A: 그럴 것 같애. 근데(-) 안 그럴 수도 있지(...) 아 몰라.

Q: 그러면 (나)에서 왜 '좀'을 선택했어?

A: 음:: 아주머니한테 존경? 그런 태도 표현하려(-) 하기 위해서(...)

Q: 공손 태도 밖에 다른 기능 없어요?

A: 응(-) 더 있어?

인터뷰 대화를 보면, 참여자 A는 앞의 문항에서 수용불가 태도를 표현할 때 보통 다 '뭐'를 선택하였지만 이 문항에서 '아니'를 선택하였다. 또한 '아니'와 '뭐'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 (나)에서 정답 '좀'을 선택하였지만 공손 기능만 한다고 생각하고 발화 약화 기능을 잘 모르고 있었다.

문항 21

아내: 여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하고 얘기 (가) 합시다. 당신 무슨 일이 있길래 늘 그리 똥하고만 있는 거예요?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생겼다. 몸이 안 좋으면 안 좋다. 막말로 내가 싫어졌으면 싫어졌다. 말을 해야 할 게 아니예요?

남편: (나) 왜 아침부터 수선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남자들이 다 그런 거지. 여자처럼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하고 수달 떨어야 돼?

가. A. 좀. B. 이제. C. /.

나. A. 뭐. B. 아니. C. 아이고.

이 문항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의 불평을 하는 내용으로 부사어 담화표지 '좀'을 사용하여 자기의 발화를 강조한다. 즉 오늘 무조건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대하여 귀찮고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를 사용하여 이해 안 간다는 감정을 표현한다. 즉 이 문항에서 '좀'은 발화 강조 기능을 하고 '아니'는 수용불가 태도 기능을 한다. 인터뷰 참여자 A, B, C는 모두 정답을 하였다.

<인터뷰 참여자 B>

Q: 여기 '좀'은 어떤 기능이야?

B: 존경? 약화? 아니(...) 좀 이상한데. 아내가 남편한테도 존경말 해야 돼? 왜 다 존경말이야?

인터뷰 대화를 통하여 참여자 B는 '좀'을 선택하였지만 이 '좀'은 공손 기능이나 발화 약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즉 '좀'의 발화 강조 기능에 대

한 잘 모르고 있었다.

3. 실제 대화 분석

중국인 고급 학습자가 실제 담화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5년 3월31일부터 4월9일까지 설문 조사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 3명¹⁸⁾에게 실제 대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방식은 3명 학습자에게 각자 한 시간 이야기를 하고, 각 대화에서 등장하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을 찾아 그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 중에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각 조의 정답률이 가장 높은 학습자¹⁹⁾를 뽑아 대화 조사를 진행하였다. 대화 조사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0> 대화 분석 참여자 정보

참여자	성별	한국 거주 기간	한국어 학습 기관	한국 내 기관
X	여	5개월	산동대학교	연세대학교
Y	여	10개월	대련외국어대학교	서울대학교
Z	여	23개월	산동대학교	서울대학교

실제 대화 조사의 결과, 즉 X, Y, Z 각자의 대화에서 등장하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횟수는 기능별에 따라 다음과 같다.

18) 대화 분석에 참여자는 X, Y, Z로 표시.

19) 정답률이 높은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기능에 대한 잘 알고 있어 실제 담화에서 표현 방식도 다른 학습자보다 다양한 것으로 추측한다. 또 언어 환경의 작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거주 기간 서로 다른 학습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31> 실제 대화 조사에서 등장하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횟수

담화표지	기능	참여자 X	참여자 Y	참여자 Z
아니	화제 시작	0 ²⁰⁾	1	0
	실수 교정	2	6	4
	부정	11	13	10
	수용불가 태도	0	0	4
	응답 회피	0	0	1
	발화 유도	0	0	0
좀	공손 태도	2	4	2
	발화 강조	1	0	2
	발화 약화	0	2	4
	응답 회피	0	0	0
	부정	0	0	0
그냥	화제 호응	1	1	0
	응답 회피	1	1	3
	발화 약화	0	1	1
	발화 강조	0	0	0
	불평 태도	0	0	0
	부정	4	1	5
	시간 벌기	1	1	2
총 횟수	-	23	31	39

이 결과에 따라 참여자 X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 총 18종 기능 중에서 8종을 사용하였고 사용 횟수는 23회이다. 참여자 Y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 총 18종 기능 중에서 10종을 사용하였고 사용 횟수는 31회이다. 참여자 Z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 총 18종 기능 중에서 11종을 사용하였고 사용 횟수는 39회이다.

또한 큰 차이가 아니지만 사용 기능 종류수는 참여자 $X < Y < Z$ 이고 기능 총 사용 횟수는 참여자 $X < Y < Z$ 이다. 이것은 또 다시 한국 거주 시간은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20) 표에 있는 숫자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각 기능이 대화에서 등장하는 횟수다.

였다.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의 이해와 사용에 대한 관련성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참여자 X, Y, Z의 설문 조사에서의 정답률을 참고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표 32> 참여자 X, Y, Z 설문조사에서의 정답률²¹⁾

담화표지	기능	X	Y	Z
아니	화제 시작	○	●	●
	실수 교정	●	●	●
	부정	●	●	●
	수용불가 태도	●	●	●
	응답 회피	●	●	●
	발화 유도	○	○	●
좀	공손 태도	●	●	●
	발화 강조	●	●	●
	발화 약화	●	●	●
	응답 회피	●	●	●
	부정	●	●	●
그냥	화제 호응	●	●	●
	응답 회피	●	●	●
	발화 약화	●	●	●
	발화 강조	○	○	●
	불평 태도	●	○	●
	부정	●	●	●
	시간 벌기	●	●	●

참여자 X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오답인 '아니'의 화제 시작 기능, 발화 유도 기능, '그냥'의 발화 강조 기능은 실제 대화 조사에서도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답인 '아니'의 수용불가 태도 기능, 응답 회피 기능, '좀'의 발화 약화 기능, 응답 회피 기능, 부정 기능, 그리고 '그냥'의 발화 약화 기능, 불평 태도 기능은 실제 대화 조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참여자 Y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오답인 '아니'의 발화 유도 기능, '그냥'의

21) '●' — 정답
'○' — 오답

발화 강조 기능, 불평 태도 기능은 실제 대화 조사에서도 등장하지 않았으나 정답인 '아니'의 수용불가 태도 기능, 응답 회피 기능, 발화 강조 기능, 응답 회피 기능, 부정 기능은 실제 대화 조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다.

참여자 Z의 경우, 설문조사에서 모두 정답을 하였지만 실제 대화 조사에서 '아니'의 화제 시작 기능, 발화 유도 기능, '좀'의 응답 회피 기능, 부정 기능, '그냥'의 화제 호응 기능, 발화 강조 기능, 불평 태도 기능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는 모르는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을 실제 대화에서도 보통 사용하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 결과를 통하여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사어 담화표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나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용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아닌 셈이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실제 담화에서 사용하는 입말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부사어 담화표지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데에도 교수 학습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 대화 조사의 참여자들이 조사에서 사용하는 부사어 담화표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33> 대화 조사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 사용 양상의 예시

담화표지	기능	예시
아니	화제 시작	Y: 아니, 내 얘기 먼저 들으면 안 돼?
	실수 교정	X: 내일 갈까? 아니, 내일 안 돼.
	부정	Q: 이따 친구 여기 올 거야? X: 아니. 직접 코엑스 만날 거야.
	수용불가 태도	Z: 아니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응답 회피	Q: 어제 회사 회의 참석했어? Z: 응. 넘 무서워. 과장님이... 아니...아냐...
	발화 유도	해당 안 됨.

좀	공손 태도	Y: 야 진짜 맛있어. 더 시킬까? 저기요, 여기 녹차 와플 좀 주세요.
	발화 강조	X: 그 얘기 그만 좀 해, 제발!
	발화 약화	Z: 야 다다음 주 가자. 다음 주 발표 있어 좀 바쁜데.
	응답 회피	해당 안 됨.
	부정	해당 안 됨.
그냥	화제 호응	X: 라떼 좋아? Q: 그냥. X: 또 그냥? 너 그냥 진짜 많다.
	응답 회피	Q: 귀신 집? 무서운데 왜 가? Z: 그냥 뭐... Q: 뭐!
	발화 약화	Q: 내일 7시 출발을 해야지? Y: 뭐? 7시? 9시 시작하잖아. 그냥 8시쯤 출발도 돼.
	발화 강조	해당 안 됨.
	불평 태도	해당 안 됨.
	부정	Q: 애가 농구 되게 좋아해. 너는? Y: 나? 그냥. 무관심.
	시간 벌기	Q: 너랑 무슨 상관이야? X: 그냥... 그냥... 물어보면 안 돼?

4.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의 해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을 알아보고 교육 방안을 구축하기 위하여 앞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중국인 학습자는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부사어 담화표지의 통사적 의미에 대응하는 기능을 잘 사용하는 반면에 다른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한국 거주 기간에 따라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쉽고 기본적인 기능보다 어려운 기능은 한국 거주 기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셋째,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을 알고 있지만 실제 담화에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부사는 부사로서의 통사적 의미와 부사어 담화표지로서의 담화적 의미 간에 차이가 있다. 중국인 학습자는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고 사용할 때 항상 그 부사 자체의 통사적 의미만 본다. 중국인 학습자는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담화에서 이런 부사어 담화표지를 단순히 부사로 보고 통사적인 의미만 고려하여 사용한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제 교육에서는 교사가 이 부사가 부사로 사용할 때와 부사어 담화표지로 사용할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학습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실제 담화에서 부사 자체의 통사적 의미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 조사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장에서 언급한 듯이 담화표지의 통사적 특징은 문장의 다른 성분에 독립적이고 필수 성분이 아니다. 하지만 화용적 특징은 다양한 담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인터뷰 조사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은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과 생략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여 실수를 하느니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이 많다.

셋째, 교수 학습 실태 조사 결과 지금 중국에서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이 부족하다. 조사를 통하여 단 11.8%의 중국인 학습자는 수업에서 교사의 설명을 통하여 부사어 담화표지를 학습하고 나머지는 사전이나 실제 의사소통 등 방식을 통하여 학습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수업에서의 교수 경우, 교사가 부사어 담화표지의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의미를 다 분석하고 예문을 들어 설명한다는 것을 선택한 중국인 학습자는 단 7.8%에 그쳤다. 즉 지

금 중국에서의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은 실제 담화에서 이런 부사어 담화표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설명을 별로 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인과 대화에서 습득하지 못하면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사용 방식을 알게 되지 못할 것이다.

넷째,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학습자의 모국어, 즉 중국어의 영향이 있다.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로 말을 할 때 번역이나 통역 해당 중국어로 대응하는 표현, 아니면 한자어를 더 사용한다는 것이 사실이다. 예시로 하면, 놀라움의 감정을 표현할 때 중국인 학습자는 중국어 '真的嗎?' '에 대응하는 '진짜?', 아니면 '정말?'을 더 사용하는 반면에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언어 환경의 영향이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학습자의 한국 거주 기간이 길수록 학습자의 정답률과 입말 표현 방식이 다양하다. 또한 한국 거주 기간은 쉽고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 큰 영향이 없지만 어렵고 맥락적인 기능에 대해 영향이 크다. 지금 중국에서의 교수 학습 환경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에서 한국인과의 교류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교사가 학생에게 한국인과의 교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하고 평소에도 부사어 담화표지의 다양한 기능을 학생에게 자연스럽게 노출해야 한다.

IV.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실제

앞서 장에서 밝힌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담화적 기능과 장에서 살펴본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사용 양상 및 오류, 비오류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수-학습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목표에 적합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 후 이 교육 모형에 대한 교육적 효과 검증을 하고자 한다.

1.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목표

교육의 목표는 크게 목적과 목표로 나눌 수 있다. 목적과 목표는 서로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성기철(1998)에 따라 목적은 목표보다 더 상위 개념이어서, 더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목적은 '왜?'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충족시키는 것이고, 목표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달되기를 기대하는 직접적인 종착점이다. 목적이나 목표나 모두 도달되기를 기대하는 가치요 기대치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상대적인 의미에서 목적은 목표에 우선하는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인 반면, 목표는 이 목적의 구현을 이상으로 하는 더 구상적이고 하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고 주장하였다²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

22) 성기철(1998)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지향하는 보편적 교육 목표의 골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1. 기능적 목표: 이해(일기, 듣기)와 표현(말하기, 쓰기)
 - (1) 문자의 이해와 쓰기
 - (2) 정확한 발음
 - (3) 단어의 이해와 사용
 - (4) 바르게 듣고 이해하기
 - (5) 바르게 읽고 이해하기
 - (6) 관용 표현의 이해와 사용
 - (7) 상황에 맞게 말하기
 - (8) 세련된 언어 표현과 글쓰기

와 같이 목적과 목표를 두 가지로 나누어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표 34>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목적과 목표

목적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와 부사어 담화표지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과 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상황이나 문맥에 맞게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표	1.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을 파악한다. 2. 화용적 층위에서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별 사용 원리를 안다. 3.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한국인 모어 화자처럼 적절한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한다.

이상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다음으로 이 목표에 적합한 교육의 내용 설계를 하고자 한다.

2.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내용

본 연구에서 설계한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내용은 II장에서의 교육 현황 조사 결과와 III장에서의 사용 양상 조사 결과, 또한 사용 양상의 해석 결과

-
- 2. 지식적 목표: 언어학적 지식의 이해
 - (1) 문자의 구조 이해
 - (2) 단어, 문장의 구조 이해
 - (3) 음성 및 음운 이해
 - (4) 단어 및 문자의 의미 이해
 - (5) 모어와 목표 언어간의 대조
 - 3. 사회·문화적 목표 - 사회, 문화, 정서, 역사 등의 이해
 - (1) 언어와 관련한 문화적 특성 이해
 - (2) 사회·문화적 배경과 언어 표현의 이해
 - (3) 언중의 정서와 언어 표현 이해
 - (4) 사회, 문화, 정서 및 역사의 이해
 - (5) 모어와 목표 언어 사회의 사회, 문화 비

를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두므로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을 실시한다. 하임스(Hymes, 1972)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① 어떤 표현이 형식상 문법에 맞는가를 판별하는 능력
- ② 어떤 표현이 실제로 생성이나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용가능한가의 능력
- ③ 어떤 표현이 그 표현이 쓰이는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가의 능력
- ④ 어떤 표현이 입 밖에 냈을 때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변별하는 능력

부사어 담화표지도 구어 담화에서 실현되므로 이상의 논의에 적용한다. 또한 앞장에서 조사의 결과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나 문제가 있다.

첫째, 지금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이 부족하다. 교재에도 학문적 설명이 없고 교사도 부사어 담화표지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부사어 담화표지를 배우지 못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주로 실제 담화에서 스스로 부사어 담화표지를 배우게 되지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부사어 담화표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는 한국어를 할 때 모국어의 영향으로 중국어와 대응하는 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어 상황이나 문맥에 맞게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셋째, III장의 조사 결과에 따라 언어 환경은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 조사 참여자의 경우, 한국 거주 시간 더 오래 있으면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양상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II장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주로 실제 담화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를 스스로 배우게 된다는 것과 맞추어 언어 환경의 영향이 부사어 담화표지의 습득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중국인 학습자는 부사가 부사로 사용할 때와 담화표지로 사용할 때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다. 중국 대학에서 담화표지의 교육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실제 담화에서도 그 부사의 통사적 의미만 고려하여 담화적 기능을 경시할 수 있다.

이상으로 II장과 III장의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5>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내용

1. 담화표지의 중요성의 이해.
2. 통사적 의미 및 담화적 기능 간의 차이.
3. 부사어 담화표지의 일반적 기능(이해).
4. 부사어 담화표지의 적절한 표현(사용).

2.1. 담화표지의 중요성의 이해

II장과 III장에서 언급한 듯이 담화표지는 화자와 청자의 발화 효과에 대한 큰 역할을 한다. 즉, 담화표지는 화자의 의도나 감정을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서희정(2010)에 따르면 한국어 모어 화자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은 한국어 학습자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발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일뿐만 아니라 발화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고 담화표지는 화자의 발화 태도를 보일 수 있는 효율적인 담화 기제라는 점에서 한국어교육에서 마땅히 다루어야 할 교육 항목이라고 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담화표지에 대한 인식 부족, 즉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 간의 차이를 잘 몰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먼저 학습자가 담화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조니나 (2008)에서는 만약 담화중의 모든 담화표지를 제거한다면 청자의 듣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고 발화자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해주는 담화표지를 잘 습득하여 각종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 담화표지는 화자의 의도나 감정의 표현 뿐 아니라 발화의 유창성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담화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가 담화에서 이런 담화표지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정중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하여 한국어 담화표지의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33) 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버스를 탔을 때 일인데요. 앞에 앉은 아주머니가 제 가방을 잡아당겨서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나: 하하하, 도둑인 줄 알고 오해를 하셨군요.

가: 글썄, 제 가방을 빼앗는 줄 알았다니까요.

(可不是嘛, 我還以為要搶我的包呢。)

나: 우린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짐을 받아 주는 일이 많아요.

(韓國語教程 제30과)

예문(33)을 보면 발화에서 담화표지 '글썄'를 빼도 담화의 의미가 변하지 않지만 여기서 담화표지 '글썄'를 붙이면 담화가 더 유창하게 되었다. 즉, 여기의 '글썄'는 강조의 기능을 하고 앞에 상대방의 '도둑인 줄 알고 오해를 하셨군요'에 대한 긍정의 태도를 표현하다.

(34) 정 교수: (...) 지난번 제일 회사 시험은 경쟁이 너무 심했지? 더군다나 남자 사원을 우선적으로 뽑았다고 하더군.

수경: 워낙 실력 있는 남자들이 많아서 따라갈 수가 있어야죠.

학창 시절에 엉터리로 공부한 벌이죠, 뭐.

(還能怎樣呢, 就當做是對上學時不好好學習的懲罰了。)

정 교수: 우리 과의 재원인 수경이가 취직 시험에 몇 번 떨어졌
다고 풀이 죽어서야 되나. 용기를 내요.

(韓國語教程 제42과)

예문(34)는 취직 시험에 떨어진 수경과 정 교수의 대화이다. 수경은 발화의 끝에서 담화표지 '뭐'를 사용하여 '-죠'와 호응하고 자기의 발화를 약화시킨다. 그뿐만 아니라, 담화표지 '뭐'를 사용하여 수경의 자조하고 단념하는 감정도 스스로 드러낸다.

이상 예문을 통하여 한국어 담화표지는 화자의 태도 표현과 담화의 유창성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자가 이런 담화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황이나 문맥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통사적 의미 및 담화적 기능 간의 차이

II장과 III장에서 언급한 듯이 부사어 담화표지는 실제 담화에서 부사로서의 통사적 의미를 상실할 수 있고 담화에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도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의 통사적 의미와 부사어 담화표지의 담화적 기능 간의 차이를 잘 몰라서 잘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자가 부사의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기능 간의 차이를 뚜렷이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아니', '좀', '그냥'의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36> '아니', '좀', '그냥'의 통사적 의미 및 담화적 기능

대상	통사적 의미	담화적 기능
아니	a. (용언 앞에 쓰여)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말. b.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이거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여)어떤 사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말.	화제 시작, 실수 교정, 부정, 수용불가 태도, 응답 회피, 발화 유도.
좀	a. 정도나 분량이 적게. b. 시간적으로 짧게. c. 부탁이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삽입하는 말. d. (주로 ‘-어야’ 앞에 쓰여)‘어지간히’의 뜻을 나타내는 말. e. (주로 수사 의문문에 쓰여)‘얼마나’의 뜻을 나타내는 말.	공손 태도, 발화 강조, 발화 약화, 응답 회피, 부정.
그냥	a.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 b. 그런 모양으로 줄곧. c. 아무런 대가나 조건 또는 의미 따위가 없이.	화제 호응, 응답 회피, 발화 약화, 발화 강조, 불평 태도, 부정, 시간 벌기.

<표 36>에 따라 실제 발화에서 대상 부사를 부사로 볼 때와 담화표지로 볼 때는 그 표현 의미에 차이가 있다.

(35) 철수: 이번 금요일 오후에 시간이 어떠세요? 영미 씨가 사정이 있어서 일찍 귀국해야 한답니다.

숙희: 그래요? 그럼 친구들끼리 송별회라도 해야지 **그냥** 헤어질 순 없지요.

(韓國語教程 제35과)

예문(35)의 경우, 예문에서 나오는 '그냥'은 부사로 보면 통사적으로 '더 이상의 변화 없이 그 상태 그대로'의 뜻이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로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진술한다. 하지만 이 '그냥'은 부사어 담화표지로 보면 발화 강조의 기능을 한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접 헤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송별회라도 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한다. 아울러 화자 숙희의 강조 태도와 무조건 친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감정을 표현한다.

2.3. 부사어 담화표지의 일반적 기능 (이해)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이다. 따라서 여기서 교육의 내용 중의 하나, 부사어 담화표지의 일반적 기능 교육에도 '아니', '좀', '그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7>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일반적 기능

부사어 담화표지	일반적 기능
아니	화제 시작, 실수 교정, 부정, 수용불가 태도, 응답 회피, 발화 유도.
좀	공손 태도, 발화 강조, 발화 약화, 응답 회피, 부정.
그냥	화제 호응, 응답 회피, 발화 약화, 발화 강조, 불평 태도, 부정, 시간 벌기.

위와 같이 제시된 일반적 기능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면서 학습자에게 설명을 해준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출현 빈도 높은 상용 기능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부사어 담화표지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학습자들로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2.4. 부사어 담화표지의 적절한 표현 (사용)

앞에 2.3은 부사어 담화표지의 이해에 대한 교육 내용이고 2.4는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에 대한 교육 내용이다.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해야 한다. 즉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는 목적은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는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는 것보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국 대학에서의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은 이해 능력부터 부족해서 사용 능력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중국인 학습자는 부사어 담화표지를 잘 이해하고 자기의 의도나 감정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조니나(2008)에 따라 담화표지의 기능과 관련하여 담화표지가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학습자들에게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담화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²³⁾

Ⅲ장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할 때 모국어의 영향이 있다. 즉 번역 및 통역 상 중국어와 대응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어 모어 화자의 표현 방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다. 이는 모국어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지만 실제 교육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에서는 단순히 중국어로 번역식이나 통역식으로 교수하지 않고 중국어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적절한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언어 환경도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즉 한국어를 듣고 말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부사어 담화표지를 더 잘 사용한다. 그리고 쉽고 기본적인 기능보다 어려운 기능은 언어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따라서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에서는 학습자에게 부사어 담화표지를 많이 노출하고 연습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하며 어렵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을 학습자에게 특별한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많은 수업 과제나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가 사용하는 담화표지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가 상황이나 문맥에 맞게 부사어 담화표지

23) 조니나(2008)에서는 담화표지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각 기능의 담화표지를 맥락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는 실제 발표에서 여러 기능의 담화표지를 따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결합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학습 방안

이 장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앞에 II장, III장에서 살펴본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전영옥(2002)에 따라 담화표지는 구어 담화에서 실현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두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중심 교육 과정(Functional/Notional Curriculums)은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여 상황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둔다. 즉 언어의 정확성보다는 유창성에 초점을 주는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 접근 방식에서는 의사소통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분석이 중요하다. 오스틴(Austin, 1962)에서는 화행(speech act)을 표면적 표현 행위(locutionary force)와 발화수반 행위(illocutionary force)로 나누었는데, 의사소통 방법론에서는 발화수반, 즉 기능적 의미를 중시한다.

① 표면적 표현: 발화의 일반적 개념

예: It's getting late(단순히 늦음을 언급).

② 발화수반 표현: 기능적 의미

예: It's getting late(집에 가야 한다는 제안).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은 여러 측면에서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 목표와 내용에 적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중심 접근법을 바탕으로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 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장에서 살펴본 중국인 학습자의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의 특징과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수법을 마련하도록 한다.

3.1. 매체를 활용한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정동수(1995)에서는 언어 교수·학습 도구로서의 미디어 사용은 오늘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아오고 있으며 영상 언어 및 영상 언어 자료는 현대의 훌륭한 언어 교수 도구이자 보조 자료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하였다.

브라운(Brown, 2000)에서는 교사 교육과 관한 교재와 관련하여 의사소통 중심 언어 교수법은 제2언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만큼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비원어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비디오, 텔레비전, 오디오 테이프, 인터넷,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라슨 프리먼(Larsen-Freeman, 2000)에서는 의사소통 언어 교수를 위해서 지도, 열차 시간표, 지원서 양식 처럼 실제 생활과 연관이 있는 실제적인 자료(authentic materials)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셀스 무르시아(Celce-Murcia, 2001)에서도 매체는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실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언어를 의사소통적 맥락에서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교사의 언어적 설명에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고 하였다.

매체에는 텔레비전, 비디오, 그림 등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청각 자료는 언어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김영엽(2005)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언어 교육에서 다양한 매체 가운데서도 왜 시청각 자료의 활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첫째, 시청각 자료는 인간의 인지과정에 더욱 친화적이다. 둘째, 시청각 자료는 언어교육 교재로서 매우 효과적이다. 셋째, 시청각 자료는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매체이다. 넷째,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다.

박혜진(2004)에서는 시청각 교재가 학생들에게 내용, 의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 학습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언어 자료

들을 창조적으로 문맥화 하게 되고 이러한 연습을 통해 효과적인 언어 학습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덧붙여 학생들이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의 의사소통 상황에까지 학습 내용을 연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대중매체의 영상 및 소리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그것에 쉽게 관심을 갖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제2언어 교육 현장에서는 TV, 라디오 등과 같은 매체에서부터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들을 가져와 실제 언어 교수에 적용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였다. 김선호(2008)에서도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실제 언어생활을 반영한 다양한 언어 표현과 문화적 자양분을 풍부하게 제공함으로써 간접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및 교사 모두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진제희(2003)에서는 교사가 담화상의 특정한 요소들을 제한하여 실제 자료를 제시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분석하게 한다면, 인위적인 언어학습 장소인 교실 현장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한국어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언어학적, 그리고 전략적 능력의 배양을 성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담화 교육에서 실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의 논의를 통하여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언어 교수는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 학생에게 실제 생활에서 쓰이는, 적절한 언어 표현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제로 한국어를 듣고 말하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한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활동 예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을 예로 들면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나오는 '그냥'

이 담긴 대화 장면을 모두 찾아 먼저 학생에게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그 다음에 학생이 그 대화를 받아쓰고 분석하도록 하는데 이 때 사용 가능한 대화문은 다음과 같다.

[대화 1]

장소: 캠핑장 일각

김탄: 아까 내가 화낸 건...

은상: 아까 전화 왜 했냐면... 아까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깐, **그냥** 니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 아주 많이.

[대화 2]

장소: 명수 작업실

김탄: 명수 작업실 오늘은 여기서 자자.

은상: 뭘 소리야. 나 **그냥**...

김탄: 알아서 할게. 친구네 갈게. 혼자 있을 수 있어. 그런 건 미국에서 다 했어. 너 이제 안 통해.

[대화 3]

장소: 캐비닛 일각

보나: 가식 찌네. 속으론 콩가루라고 욕하면서 줄서는 것 봐.

은상: 친구니까 축하해 주는 거겠지.

보나: 야. 이 학교에 친구가 어딴어. 여긴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인맥이야.

[대화 4]

장소: 편의점 앞

은상: 뭐냐 너. 왜 여겼어?

영도: 우리가 선약이 있을 줄 미리 알았지. 근데 나 추운 거 되게 싫거든?
답에 나 기다릴 땐 지붕 있는 데서 기다려라?

은상: 기다리긴 누가, (점퍼 벗으려 하며) 추우면 얼른 이거나 도로...

영도: (얼른 점퍼깃 꼭 여며주며) 협박하기 전에 **그냥** 좀 입어라.

[대화 5]

장소: 명수 작업실

은상: 누구 와?

김탄: 명수겠지.

은상: 그럼 어떡해?

김탄: 어떡하긴? **그냥** 조용히 하면 돼. 어차피 못 들어와 내가 비밀번호
바꿨거든.

은상: 남에 비밀번호를 왜 바꿔!?

[대화 6]

장소: 방송부

효신: 너 근데 왜 온거냐?

김탄: **그냥** 보고 싶어서 온거야.

[대화 7]

장소: 서점 안

주인: 근데... 은상이 너는 왜 학교 안 다녀?

은상: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 검정고시 보려고요.

주인: 그럼 서울에서 학교 다닌 거야? 어느 학교 다녔는데?

은상: **그냥**... 남녀공학이요.

앞에 제시한 것과 같은 대화문을 받아쓰게 한 후에 교사는 학생이 해당 대화 상황을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이 상황 분석을 통하여 대화에 나타난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기능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각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사어 담화표지 '그냥'의 기능을 정리하여 학생에게 자세하게 설명한다.

3.2. 모국어를 활용한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부트즈캄(Butzkamm, 1971)에 따르면 외국어 수업은 단일 언어 사용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지 단일 언어 사용방식을 이용하여서 이해가 잘 안되거나 수업 경제성의 원칙이 잘 안 지켜질 때에는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 어휘는 목표 외국어로 설명하지만 예외는 허락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김영자(1994)에서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학습자는, 이미 배운 모국어 체계의 영향 아래 외국어를 배우고 해석할 수 밖에 없어서 외국어 수업에서 모국어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브라운(Brown, 1994)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가 새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모국어가 목표어에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장 현저하고 관찰 가능한 효과는 간섭 효과인 것처럼 보인다. 박덕재·박성현(2011)에서는 외국어습득은 모국어(L1)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 있는 반면에 모국어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결도 있다. 즉 L1이 L2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간섭현상을 낳고, L1의 지질들이 L2에 전이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전이'(transfer)란 L2를 구사할 때 L1의 말이나 표현, 구조를 그대로 또는 비슷하게 영향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L2 학습자가 지산의 모국어인 L1의 지식을 가지고 L2에 적용하는 경우는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대로 L2와 완전히 다른 L1의 지식을 L2로 전이한다면, '부정적인 전이'(negative transfer)²⁴⁾의 결과

를 낳게 된다.

이상 논의를 보면, 학습자의 모국어는 제2언어 학습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 사실은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할 때 모국어, 즉 중국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III 장에서의 조사 결과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중국인인 경우 그들의 모국어인 중국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어를 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를 예로 들면, '아니'는 통사적인 의미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했을 때 '不是', 즉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된다. 그러나 아래 상황에서의 '아니'는 '부정'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① **아니**, 내 말 먼저 들어봐. 喂, 你先聽我說。
② 가: 나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밥 안 먹었어.
나: **아니**, 이게 말이 돼?! 天哪! 這像話嗎?

...

위의 예시에서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부정의 의미를 상실하고 다른 기능을 한다. 또한 ①에서의 '喂'는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저기요'에 대응하는 표현이며 ②에서의 '天哪'는 한국어의 '세상에', '아이고' 정도에 대응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 과정에는 이런 특징을 고려하여 중국어를 적절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교수해야 하며 이를 적용한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활동 예시]

학생들로 아래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지도한다.

-
- 24) 박덕재·박성현(2011)에 따라 부정적 전이는 간섭(interference)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모국어의 어휘, 유형 또는 문법규칙이 목표언어에 영향을 미쳐서 오류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구문론에서 말하는 '핵 매개변인'(head parameter)으로 설명하면, 핵이 보어를 선행하는 핵-선행(head-initial) 언어와 핵이 보어를 후행하는 핵-말(head-final) 언어로 나뉜다. 예를 들어, 영어는 핵-선행어인 반면에 한국어나 일본어는 핵-말 언어이다.

① A : 今天留的作業 (你寫了嗎) ...

B : 喂, 能別說作業嗎...

② A : 你知道嗎? 她背著父母結婚了。

B : 天哪? 還有這種事!

③ A : 你知道他為什麼沒來嗎?

B : 當然知道了。他...沒什麼...

...

번역한 내용을 참고한 후 학생에게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는 중국어의 어떤 형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더불어 '아니'의 담화적 기능을 자세히 설명한다.

3.3.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모형

II장에서의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기능 분석과 III장에서의 사용 양상 분석 결과, 그리고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기존의 담화표지 교수 모형을 고찰하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실제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언어 교육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교수 방법에는 P-P-P (Present-Practice-Produce) 방법과 O-H-E (Observation-Hypothesis-Experiment) 방법이 있는데 P-P-P 방법은 문법교육에 주로 사용되며 O-H-E 방법은 어휘교육에 주로 사용된다. 이종은(2005)에 제시된 PPP 교수 방법론과 OHE 교수 방법론의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표 38>²⁵⁾ PPP 교수 방법론의 특징과 문제점

단계		특징 및 문제점
제시	교사의 제시와 설명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주입식/ 교사 중심 · 상향식(bottom-up) 접근
연습	통제된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지식과 정확성에 초점 · 개념과 인지 중심의 학습
생산	의사소통과 연결지은 과제 시도: 교수항목의 중점적 사용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정 결여 · 개별 교수항목의 분리학습

<표 39>²⁶⁾ OHE 교수 방법론의 특징과 문제점

단계		특징 및 문제점
관찰	인지·인식을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중심 · 하향식(top-down) 접근
가설	관찰·발견을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사용과 유창성에 초점 · 개념과 인지 중심의 학습 · 과정 중시
실험	탐구·시도를 위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항목의 통합적 학습 · 과제중심, 내용중심, 코퍼스 중심의 교수-학습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도출된 결과와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카시와 카터 (McCarthy & Carter, 1995)가 제시한 'I-I-I (Illustration-Interaction-Induction)' 방법을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자 한다. 매카시와 카터 (McCarthy & Carter, 1995)에서는 담화 교육은 그 특성상 다른 방법들과 달리 I-I-I 방법론이 언어 학습자에게 유창하고 정확하고 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지영

25) 이종은(2005) 4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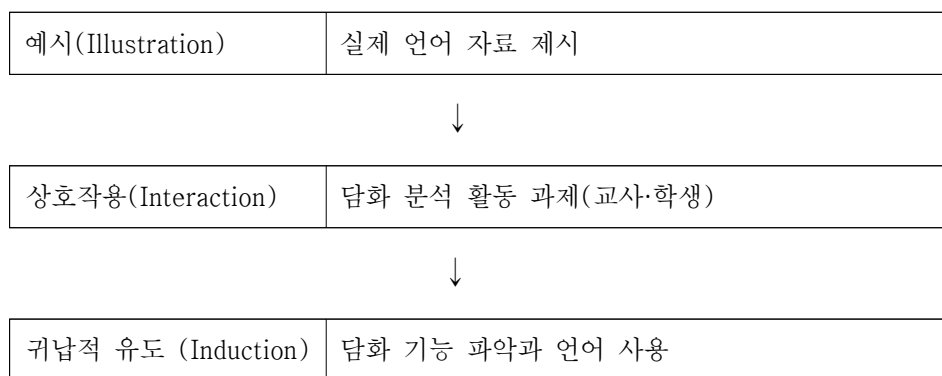
26) 이종은(2005) 52쪽 참조.

(2006)에서도 PPP 방법론, OHE 방법론, 그리고 III 방법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표 40>²⁷⁾ 언어교수방법론과 특징

교수 방법		특징
P-P-P	제시	교사의 제시와 설명에 의존
	연습	통제된 연습
	생산	의사소통 과제 시도
O-H-E	관찰	인지·인식을 위한 과제
	가설	관찰·발견을 위한 과제
	실험	탐구·시도를 위한 과제
I-I-I	예시	실제 언어 자료 제시
	상호작용	담화 분석 활동 과제(교사·학생)
	귀납적 유도	담화 기능 파악과 언어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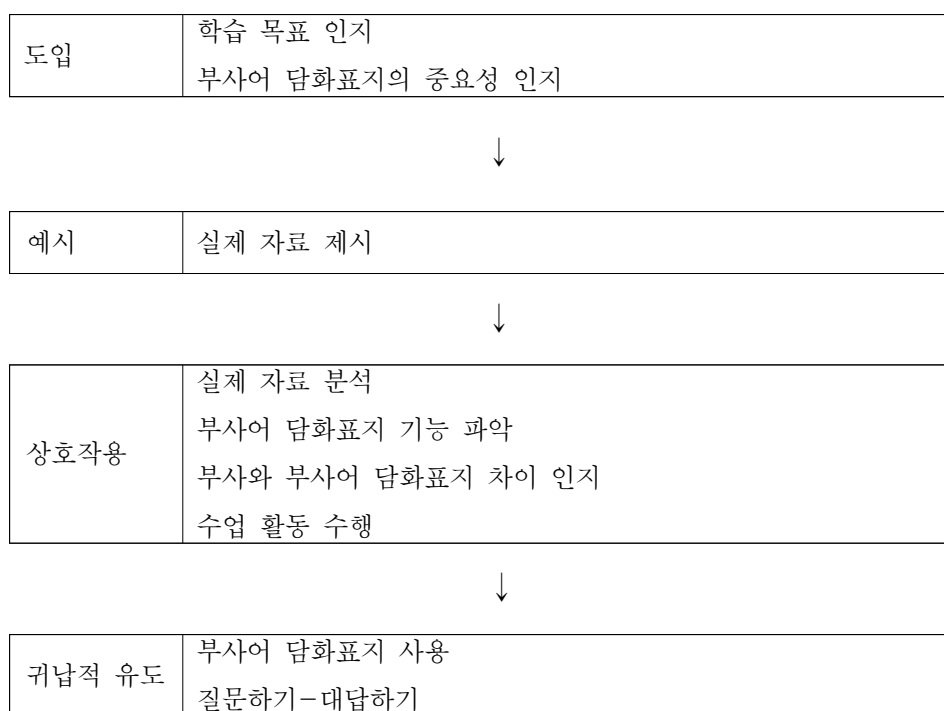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I-I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수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지영(2006)에 따르면 I-I-I 방법론의 기초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I-I-I 방법론

27) 이지영(2006) 324쪽 참조.

이지영(2006)에 따르면 예시 단계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실제 문맥에서 사용된 자료를 제시하여 학습 목표가 되는 담화 기능에 대한 개념과 언어 문화간 차이를 인지하도록 하는 스키마 형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상호작용 단계는 구어 담화 활동과 관련된 과제 수행을 통해 담화 기능을 익히는 단계이다. 귀납적 유도 단계에서는 자료 관찰과 분석을 통해 파악한 담화 특징을 통해 담화 기능을 파악하고 실제 의사소통 활동을 해 봄으로써 학습 목표가 되는 담화 기능에 대해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I-I-I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7]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학습 모형

먼저, 수업 도입 단계에서는 학생이 부사어 담화표지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수업 학습 목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에게 학습 목표인 부사어 담화표지를 포함된 예문을 보여주고 스스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 후 해당 부사어 담화표지를 뺀 예문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분석하고 원래 예문과 비교하게 함으로써 담화에서 부사어 담화표지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한다.

예시 단계에서는 학생에게 드라마나 영화 등 실제 자료를 보여주고 학습 목표인 부사어 담화표지를 담은 담화의 상황을 학생에게 설명한다.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먼저 보여준 실제 자료를 분석하고 학습 목표인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을 파악하도록 한다. 문수지(2013)에서는 담화표지는 형태가 같더라도 담화에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담화표지 교육에서 담화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보여준 실제 자료에서 나오는 부사어 담화표지는 해당 담화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수업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생이 학습 목표인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을 학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귀납적 유도 단계에서는 상호작용 단계에서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실제 담화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²⁸⁾. 이 단계에서도 수업 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직접 학습 목표인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기-대답하기 단계에서는 교사가 학습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단계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논의한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설계한 수업 구성의 예이다.

(1) 수업 구성

28) 이지영(2006)에서는 I-I-I 방법은 학습자가 실제 자료를 학습 자료로 삼아 대화의 원리를 직접 관찰하고 분석한 후 직접 의사소통 활동을 해 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수업 대상: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학습 내용: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기능.

학습 목표:

-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일반적인 기능을 파악한다.
- 부사로서의 '좀'과 담화표지로서의 '좀'의 차이를 안다.
- 실제 담화에서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학습 시간: 60분.

(2) 수업 절차

① 도입 단계

가: 실례합니다. 길 (좀) 묻겠습니다.

나: 어딜 가세요?

(전화 중)

가: 여보세요. XX 언어 학원입니다.

나: 미안하지만 이철수 씨 (좀) 바꿔 주세요.

도입 단계에서는 먼저 학생에게 이상의 예문을 보여주고 직접 분석해 보도록 지도한다. 이후 부사어 담화표지 '좀'을 뺀 같은 예문을 학생에게 보여주고 이를 다시 분석하여 원래의 예문과 비교하도록 지도하는데 이는 학생들이

로 하여금 부사어 담화표지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다.

② 예시 단계

이 단계에서 실제 자료 드라마 <상속자들>의 동영상을 사용하는데 먼저 이 드라마의 내용을 학생에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부사어 담화표지 '좀'이 포함된 동영상을 보여준다.

1. 호텔 룸에서

라헬: (효신에게) 자리 **좀** 비켜주죠?

효신: 이 방 내가 잡았는데? 애가 얹혀 자는 거야.

라헬: (김탄에게) 넌 돈 없니?

김탄: 호텔 비싸. 할 얘기 뭔데.

2. 거실에서

지숙: 국으로 납작 엎어져 있어도 분할 판에, 감히 날 건드려?

기애: 그러니까 이런 일로 서로 힘 빼지 말고 우리 그냥 호적정리 **좀** 해요. 네?

지숙: 호적정리? 니가 아직도 니 위치가 어디쯤인지 감이 안 오지?

3. 중학교 근처 거리에서

어린김탄: 최영도 애기 **좀** 하자고요!

어린영도: 너랑 할 애기 없다고 했지!

4. 보나 방에서

은상: 엄마가 일하시는 집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 우리 엄마, 가사 도우미시거든.

보나: 너가 알바를 그렇게 하는데 그 정도 스펙이야 예상 못했던 바는 아니야.

은상: 근데... 장애가 있으서. 말을 못하시거든.

보나: 뭐?!!! 미안. 나 너무 놀랐지. 이런 건 놀라면 안 되는데. 미안.

은상: 너 생각보다 꽤 괜찮다? 나 니 욕 많이 했는데.

보나: 괜찮아. 난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럼, 캠핑 쓴 니네 엄마 대체

누구야?
은상: 그건 줌...
보나: 아냐, 됐어. 안 들어 안 들어. 그것까지 들으면 진짜 친구해야 할 것 같잖아.

.....

③ 상호작용 단계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먼저 학생에게 앞서 보여준 장면에서 해당하는 드라마 <상속자들> 대본을 주고 분석하게 지도하는데 이때 학생이 부사어 담화표지 '줌'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줌'이 들어간 대사를 뽑아 학생에게 부사로서의 '줌'과 담화표지로서의 '줌'의 차이를 설명한다. 앞에 대사3을 예로 들면 '최영도 얘기 줌 하자고요!'에서의 '줌'은 부사로 보면 '시간적으로 짧게'의 뜻으로 곧 '최영도 얘기 짧게 하자고요!'의 뜻이다. 하지만 '줌'은 부사어 담화표지로 보면 담화에서 강조의 기능을 하는 요소로 곧 '나랑 얘기 하자'를 강조한다. 이런 방식으로 교사는 학생이 부사와 부사어 담화표지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단계에서는 학습활동으로 두 명의 학생이 팀을 이루어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부사어 담화표지 '줌'을 사용하여 대답하도록 지도한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줌'의 기능을 가능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활동이 끝난 후에는 각 팀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그 팀의 대표 학생이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④ 귀납적 유도 단계

귀납적 유도 단계에서 '그림²⁹⁾ 대화 만들기' 활동을 수행한다.

29) 그림의 출처: http://blog.sina.com.cn/s/blog_4b59f4c50100ap8j.html



'그림 대화 만들기' 활동은 상호작용 단계에서와 같이 두 명의 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수행하는데 그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 명의 학생이 그림에서의 역할을 정하고 서로 대화를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대화 내용을 스스로 녹음한다. 다음으로 녹음 대화를 들으면서 대화에 나타나는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이후 교사는 팀을 뽑아 발표를 시키고 반 학생들이 같이 토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림 대화 만들기' 활동을 끝내고 난 후에는 보충설명과 함께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이 수업의 학습 내용, 부사어 담화표지 '좀'의 상용 기능과 사용 양상에 대해 정리하고 수업을 마친다.

4. 교수·학습 효과 검증

본고에서 제안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5년 5월31일부터 6월11일까지 효과 검증 실험을 진행하였다.

4.1. 실험 내용 및 참여자 선정

효과 검증의 실험 내용은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다양한 담화적 기능이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효과 검증 실험은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20명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고에서 제안한 수업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참여자를 무작위로 10명씩 선정하여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배정하였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41> 효과 검증 실험 참여자 정보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인수	10명	10명
연령	20대	20대
한국어 학습 기간	4년 이상	4년 이상
한국어 수준	TOPIK 고급	TOPIK 고급
학력	대학원생	대학원생
한국 거주 기간	12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4.2. 실험 절차 및 방법

효과 검증 실험은 크게 '사전 평가 - 수업 실시 - 사후 평가 - 사후 인터뷰'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먼저 사전 평가는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모든 기능이 포함된 총 18개의 대화를 제공하고 실험 참여자가 각 대화에서 등장하는 해당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다음으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한다. 통제 집단의 경우, 중국에서의 교육 방법에 따라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韓國語教

程》 교재에서 나오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통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문항이나 대화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교육한다. 실험 집단의 경우, 본고에서의 교육 모형에 따라 먼저 드라마 대본에서 나오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담화적 기능을 통사적 의미와 구분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실험 참여자에게 자세히 설명한다. 설명 후에는 학습자들 스스로 연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수업 후에 모든 실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모든 기능이 포함된 총 18개의 대화를 제공하고 실험 참여자가 각 주어진 대화에 등장하는 해당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이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정답률, 그리고 사전·사후 테스트의 정답률을 각각 비교하고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후 인터뷰 실시함으로써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한다.

사전 평가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총 18개의 대화로 구성한다. 실험 참여자가 각 대화에서 등장하는 해당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도록 한다.



수업

통제 집단 중국 내 교육 방법	실험 집단 본고에서의 교육 모형
1. 교재에서 나오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통사적 의미를 설명. 2. 중국어로 번역.	1. 드라마 대본을 사용.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기능을 구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 2. 연습 활동을 진행.



사후 평가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총 18개의 대화(사전 평가와 다르게 난이도가 비슷한 것)으로 구성한다. 실험 참여자가 각 대화에서 등장하는 해당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도록 한다.



사후 인터뷰

본고에서의 교육 모형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본다.

[그림 8] 효과 검증 실험의 절차

4.3. 실험 결과 분석

사전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³⁰⁾.

<표 42> 사전 평가의 결과

부사어 담화표지	기능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아니	화제 시작	3 ³¹⁾	4
	실수 교정	3	2
	부정	10	10
	수용불가 태도	7	6
	응답 회피	4	5
	발화 유도	0	0
좀	공손 태도	2	4
	발화 강조	1	2
	발화 약화	0	0
	응답 회피	1	1
	부정	10	10
그냥	화제 호응	8	8
	응답 회피	4	5
	발화 약화	5	4
	발화 강조	0	0
	불평 태도	0	1
	부정	5	5
	시간 벌기	2	1
총		65	68

사전 평가의 결과를 통하여 두 집단은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이해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전 평가 테스트를 끝낸 후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게 교육 방법이 다른 수업을 진

30) 이 평가는 실험 참여자로 하여금 각 대화에서 나오는 부사어 담화표지의 역할을 분석하도록 한다. 이때 한국어로 답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중국어로도 가능하게 하였다. 정답의 기준은, 단순히 중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이나 대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한 화자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31) 표에 있는 숫자는 정답을 쓴 참여자의 수이다.

행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 참여자에게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모든 기능이 포함된 총 18개의 대화로 구성된 사후 평가를 치르도록 하였다. 사후 평가에 사용된 대화는 사전 평가와 다르나 난이도는 비슷하다.

사후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3> 사후 평가의 결과

부사어 담화표지	기능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아니	화제 시작	4	8
	실수 교정	3	3
	부정	10	10
	수용불가 태도	7	10
	응답 회피	6	9
	발화 유도	0	2
좀	공손 태도	2	10
	발화 강조	0	7
	발화 약화	0	9
	응답 회피	1	10
	부정	10	10
그냥	화제 호응	8	7
	응답 회피	8	10
	발화 약화	7	9
	발화 강조	0	4
	불평 태도	0	1
	부정	6	9
	시간 벌기	4	7
총		76	135

또한 사전·사후 평가 테스트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4> 사전·사후 평가 결과 비교

	사전 평가	사후 평가	향상도
통제 집단	65	76	11
실험 집단	68	135	67

<표 44>의 결과를 보면, 먼저 사후 평가의 결과, 통제 집단은 총 76개 문항을 정답으로 맞췄고 실험 집단은 총 135개 문항을 정답으로 맞췄다. 또한 사전 평가의 결과와 비교하여 나온 향상도에서 원래 수준이 비슷한 두 집단 중이었음에도 통제 집단은 11개를, 실험 집단은 67개를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담화적 기능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실험의 결과에 따르면 통제 집단의 참여자들은 단순히 부사어 담화표지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실험 집단의 참여자들은 상황을 고려하여 부사어 담화표지의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를 통하여 본고에서 제안한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학습 모형은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의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업이 끝난 후에 실험 집단 참여자들에게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① 부사어 담화표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 ② 부사어 담화표지의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기능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까?
- ③ 부사어 담화표지의 이해와 사용에 대해 더 알 수 있었습니까?
- ④ 이 수업은 전체적으로 부사어 담화표지를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까?

인터뷰 결과, 대부분의 실험 집단 참여자는 부사어 담화표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기능을 구분하게 되었으며 실제 대화에서의 부사어 담화표지의 역할을 더 심층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해당 수업이 부사어 담화표지를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참여자가 많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모형이 실제로 부사어 담화표지를 효과적으로 교수하고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기능과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담화 차원에서의 담화표지는 화자의 의도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담화표지는 담화 내에서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특정한 기능을 가지며 말을 유창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많은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담화표지는 품사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사어 담화표지는 한국어에서 중요한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는 부사와 부사어 담화표지 간에 실제 담화 상황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떤 기능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부사와 부사어 담화표지를 구별하고 실제 담화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처럼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II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한국어 담화표지의 정의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 '아니', '좀', '그냥'을 중심으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의 사용 및 담화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사어 담화표지	담화 기능
아니	화제 시작, 실수 교정, 부정, 수용불가 태도, 응답 회피, 발화 유도.
좀	공손 태도, 발화 강조, 발화 약화, 응답 회피, 부정.
그냥	화제 호응, 응답 회피, 발화 약화, 발화 강조, 불평 태도, 부정, 시간 벌기.

또한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재를 분석하고 중국 대학

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 현황과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중국 대학에서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의 사용 양상을 확인하고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II장에서 논의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 조사를 만들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후에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왜 그러한 사용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가 실제 담화에서 부사어 담화표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대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데에 오류나 비오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정리하고 해석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부사어 담화표지의 교수 방법이 부족하다.
- ②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학습자의 의식이 부족하다.
- ③ 담화에서 중국어의 영향이 있다.
- ④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데에 언어 환경의 영향이 있다.
- ⑤ 부사의 통사적 의미와 부사어 담화표지의 담화적 기능 간의 차이를 모른다.

I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본 내용과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부사어 담화표지 교육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목표에 따라 효과적인 부사어 담화표지 교수-학습 내용을 구축하였다. 즉 부사어 담화표지의 중요성의 이해,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기능 간의 차이, 일반적 기능, 적절한 표현, 이러한 교육 내용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I-I-I 방법론을 활용하여 '도입 단계-예시 단계-상호작용 단계-귀납적 유도 단계'의 교수-학습 모형을 마련하고 교수-학습 방안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업 모형이 실제 교육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과 검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부사와 부사어 담화표지를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가 상황이나 문맥에 맞게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사어 담화표지 '아니', '좀', '그냥'을 중심으로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아니', '좀', '그냥' 외의 다른 부사어 담화표지가 가지는 기능을 비교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임을 보인다.

참고문헌

1. 한국어 교재 및 사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韓國語教程1, 世界圖書出版公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韓國語教程2, 世界圖書出版公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韓國語教程3, 世界圖書出版公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韓國語教程4, 世界圖書出版公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韓國語教程5, 世界圖書出版公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2009), 韓國語教程6, 世界圖書出版公司.
북경대학교 등(2004), 標準韓國語 第一冊,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교 등(2012), 標準韓國語 第二冊(修訂版), 北京大學出版社.
북경대학교 등(2013), 標準韓國語 第三冊(第4版), 北京大學出版社.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2. 국내 논저

(1) 단행본

박경자·장복명(2011), 『언어교수학』, 박영사.
박덕재·박성현(2011), 『외국어 습득론과 한국어 교수』, 박이정.
박영순(2004), 『한국어 담화·텍스트론』, 한국문화사.
배두본(2000), 『외국어 교육 과정론: 이론과 개발』, 한국문화사.
서상규(2013), 『한국어 구어 말뭉치 연구』, 한국문화사.
이원표(2002),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한국문화사.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연구원.
허용·강현화·고명균·김미옥·김선정·김재욱·박동호(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2) 논문

- 김미숙(1997), 「대화구조로 본 '아니'의 기능」, 『담화와 인지 4』, 77-101쪽.
- 김민영(2009), 「구어 담화의 응집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상훈(2013), 「한국어 담화표지 연구: '아무튼', '어쨌든', '하여튼'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호(2008), 「태국인을 위한 과제중심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희(1995), 「담화표지의 의미 연구」, 『논문집』, 5-26쪽.
- 김순자·이필영(2005), 「담화표지의 습득과 발달」, 『국어교육 118』, 149-180쪽.
- 김영엽(2005), 「동영상 광고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자(1994), 「독일어 수업에서의 모국어의 역할」,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철(2012), 「발표 담화에 나타난 담화표지의 기능: 대학생들의 발표수업을 대상으로」, 『어문논집 50』, 7-30쪽.
- 김영희(1995), 「화용 표지 '말이다'의 통사론적 고찰」, 『한국학 논집 22』, 115-134쪽.
- 김은정(1998), 「담화표지 '그래·글쎄·아니'의 기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엽(2000), 「국어 담화표지되기」, 『나랏말쌈 15』, 56-78쪽.
- 김향화(2001), 「한국어 담화표지의 기능」, 『한국학논집 28』, 113-140쪽.
- 김현주(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에 나타난 텍스트적 담화표지 사용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동가곤(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담화표지 연구: '뭐', '글쎄', '있잖아'를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수지(2013),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담화표지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영(2010), 「발표 담화에 나타난 담화표지 실현 양상과 기능: 대학 학

- 습자의 자기소개 발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5』, 455-474쪽.
- 박영순(2004),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국어교과교육연구 7』, 17-51쪽.
- 박재희(2012), 「좀의 성격: 그 기능과 의미에 관하여」, 『한국어학 57』, 207-233쪽.
- 박혜선(2012),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에 나타난 담화표지 '그냥」, 『이중언어학 49』, 137-162쪽.
- 박혜진(2004), 「대중매체를 활용한 영어 문법 교육이 중학교 학습자의 문법 학습 효과 및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은정(2011),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표지 사용 양상 대조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승아·김혜숙(2008), 「구어 담화표지의 환담적 기능 연구: 무릎 짹 도사의 담화표지 '오'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0』, 545-566쪽.
- 서희정(2010), 「한국어 교육 항목으로서 담화표지 '말이다'에 대한 고찰」, 『이중언어학 43』, 217-246쪽.
- 선신희(201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담화표지 교육 방안 연구: '그래', '글쎄', '아니'의 중국어 대응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기철(1998),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이중언어학 15』, 41-68쪽.
- 손세모돌(1988), 「'좀'의 상황적 의미」, 『동아시아 문화연구 14』, 477-508쪽.
- 신아영(2011), 「감탄사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전략 교육 연구: '네', '그래', '아니'류의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란희(2011),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담화표지 '그냥'의 기능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의정(1998), 「한국어 입말뭉치 전사 방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안주호(1992), 「한국어 담화표지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7』,

- 21-38쪽.
- _____(2009), 「한국어교육에서의 담화표지 위계화 방안」, 『한국어교육 20-3』, 135-159쪽.
- _____(2009), 「축약형 담화표지 '좀/막'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4』, 199-223쪽.
- 원해운(2014), 「한국어 담화표지 '아니'와 중국어 '不是'의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선미(2010), 「말레이시아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토론 담화표지 사용 현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애(2002), 「국어 고유어 접두사의 의미 연구」, 『우리말글 26』, 81-100쪽.
- 이종은(2004), 「어휘적 접근법을 통한 한국어 의존용언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영(2006), 「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담화 능력 배양을 위한 담화 정보 활용」, 『한국어교육 17』, 307-331쪽.
- 이한규(1996), 「한국어 담화 표지어 '그래'의 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3』, 1-26쪽.
- 이해영(1994), 「담화표지 '글쎄'의 담화기능과 사용의미」, 『이화어문 논집 13』, 129-150쪽.
- 이효경(2014),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담화표지 연구: '자', '참', '있잖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규홍(1995), 「담화표지 '뭐냐'와 '있지'에 대하여」, 『어문학 56』, 51-68쪽.
- _____(1996), 「국어 담화 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2』, 1-20쪽.
- _____(1998), 「부사 '정말'류의 담화적 의미」, 『한국어 의미학 2』, 237-254쪽.
- 장범(2012),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담화표지 활용 읽기·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전영옥(2002), 「한국어 담화표지의 특징 연구」, 『화법연구 4』, 113-145쪽.
- 정동수(1995), 「다매체 영어 교육의 필요성」, 『응용 언어학 8』, 181-206

쪽.

- 정선희(200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담화표지 연구: '글쎄', '뭐', '좀'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진경(2012),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르 중심 쓰기 교육 연구: 시험 답안 담화 표지 분석을 중심으로」,
- 조니나(2008),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 중국인 학습자의 담화표지 사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주경희(2000), 「'좀'과 '조금」, 『국어학 36』, 379-399쪽.
- _____(2004), 「'좀' 문법화의 의미, 화용론적 연구」, 『국어교육 115』, 433-453쪽.
- 진제희(2003), 「사회언어학적 및 전략적 말하기 능력 배양을 위한 담화분석 방법의 적용」, 『한국어 교육 14』, 299-321쪽.
- 최은지·이동은(2013), 「외국인 유학생의 발표 보조 자료 활용 양상」, 『새국어교육』, 423-446쪽.
- 한국희(2013), 「담화표지 독립용법의 한국어교육적 의미: "물론이다"와 "당연하다"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2』, 513-536쪽.
- 호옥문(2014), 「중국인 한국어 교사의 수업 내 학습자 모어 사용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3. 외국 논저

- Austin, J.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England: Clarendon Press.
- Blakemore, D. 1987. Semantic Constraint on Relevance. Oxford Basil Blackwell.
- Breen, M., and C. N. Candlin. 1980. The essentials of a communicative curriculum in language teachings. Applied linguistics 1(2).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White Plains, NY: Addison Wesley Longman.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권오량·김영숙·한문석 공역 (2002), 원리에 의한 교수,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Brown, H. D. 2006.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이홍수 역(2012), 외국어 학습·교수의 원리,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Butzkamm, W. 1971. Aufgeklärte Einsprachigkeit. Darstellung und Diskussion von. C.J.dodsons Bilingual Method. In: Praxis desneusprachlichen Unterrichts.
- Celce-Murcia, M. 2001.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ass: Heinle & Heinle Publishers.
- Hymes, D.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and J. Holmes(ed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 Labov, W. and Fanshel, D. 1977. Therapeutic Discourse: Psychotherapy as Conversation. New York: Academic Press.
- Larsen-Freeman, D. 2000. Techniques and Principles in Language Teaching. 방영주 옮김(2009), 외국어 교육의 교수기법과 원리, 경문사.
-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안미란 옮김(2007), 의사소통적 교수법, 한국문화사.
- Redeker, D. 1990. Ideational and Pragmatic Markers of Discourse Structure. Journal of Pragmatics 14.
- Richards, C. and Rodgers, S. 1986. Approaches and methods in language teaching. 임병빈 역(1994), 언어교수 방법론, 형설출판사.
- Schiffrin, D.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vick, E. 1982.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ta Lenk. 1998. Marking Discourse Coherence: Functions of

Discourse Markers in Spoken English.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부록 1. 설문지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談話標誌)에 관한 설문 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장월형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한 이해와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연구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전공

석사 과정

연구자: 장월형

인적 정보

나이:

성별:

소속 기관:

한국어 학습 기관:

한국어 수준: TOPIK 급

한국어 학습 기간: 년 개월

한국 거주 기간: 년 개월

I. 교수 학습 실태 조사

1.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A. 전혀 없다 B. 거의 없다 C. 보통 D. 조금 있다 E. 자주 있다
2.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
A. 전혀 없다 B. 거의 없다 C. 보통 D. 조금 있다 E. 자주 있다
3. 중국 대학에서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까? ()
A. 전혀 없다 B. 거의 없다 C. 보통 D. 조금 있다 E. 자주 있다
4. 담화표지를 주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습니까? ()
A. 수업 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통해서 공부했다.
B. 사전이나 인터넷을 찾으면서 혼자 공부했다.
C.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공부했다.
D. 기타 ()
5. 수업 시간에서 교사는 부사어 담화표지를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
A. 부사어 담화표지에 대해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B. 부사어 담화표지의 통사적 의미만 간단하게 설명했다.
C. 부사어 담화표지의 통사적 의미와 담화적 의미를 다 설명하고 예문을 들어 설명했다.
D. 기타 ()

6. 한국어 부사어 담화표지가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
- A. 배워 본 적이 없다.
- B. 뜻이 같은 부사어 담화표지가 많다.
- C. 부사어 담화표지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잘 모른다.
- D. 부사어 담화표지가 담화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 E. 기타 ()
7. '그냥'은 부사로서 사용할 때와 담화표지로서 사용할 때 그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 A. 같다. B. 다르다. C. 모른다.

II. 학습자 사용 능력 조사

1. 희정: 내가 어제 강남에 가서 쇼핑을...
 혜영: (), 이것 좀 봐봐. 이게 뭐야?
 A. 자. B. 아니. C. /
2. 아버지: (...) 요즘 젊은이들이 무조건 새것만을 좇는 경향에 두려움마저 생겨서 그런다.
 철호: 아버지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경쟁사회에서 이기려면, () 그것보다 국제 사회에 보조를 맞추려면 우리가 배워서 알아 두어야 할 게 너무 많은 걸요.

A. 아니. B. /. C. 심지어.

3. 철수: 무슨 일 있니?

현우: () 아무 일도 없어.

A. /. B. 아니. C. 아.

4. 철수: 저, 오늘 이만 가 봐야겠습니다. 차를 잘 마셨습니다.

사모님: () 왜 벌써 가세요? 선생님 만나 뵙고 가지지 그래요.

A. 아니. B. /. C. 뭐.

5. 철수: 나 결혼했어!

현우: 진짜? 야! 니가 정말... ()

철수: 왜.

현우: 왜? 왜 얘기 안했어!

A. /. B. 아니. C. 됐어.

6. 철수: 은영이 얘기 들었어?

현우: ()?

철수: 이혼했다며...

A. 뭐. B. 아니. C. 왜.

7. 철수: 저기요.

웨이터: 예, 고객님. 뭘 도와 드릴까요?

철수: 여기 물티슈 () 주세요.

A. 줌. B. /. C. 그냥.

8. 철수: 어머니, 아까부터 뭘 그리도 골똘히 생각하세요?

어머니: 애, 조용히 () 해라. 네 색시 될 사람하고 너하고 궁합

이 어떤지 알아보려는 거야.

A. /. B. 좀. C. 제발.

9. 철수: (모임) 모레 저녁 시간이 어떻습니까?

현우: 그 날은 () 바쁜데요. 하지만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A. 많이. B. /. C. 좀.

10. 철수: 노래 한 곡 할래?

현우: (하고 싶지 않다)아, 나 화장실 ()...

A. /. B. 잠깐. C. 좀.

11. 웨이터: 음식 맛이 괜찮으세요.

현우: 음...()...

A. 좀. B. 아니에요. C. 별로.

12. 철수: 제가 다 할 테니까 쉬기만 하세요.

민아: 아니, 왜?

철수: 그냥...

민아: 그냥? () 어딴어?

A. 이런 거. B. 그냥. C. 그런 거.

13. 철수: 너랑 상관도 없는데 니가 왜 갔어? 왜?

현우: () 뭐...

A. 그거. B. 그냥. C. /.

14. 철수: 아니, 이거 꼭 오늘 해야 돼? 난 오늘 시간도 없는데...

현우: 급한 일이 아니니까 () 내일 해도 돼.

A. 그냥. B. /. C. 어차피.

15. 철수: 이제 불 좀 그만 때 ()! 고기 다 탔잖아, 이미!

현우: 아, 미안해.

A. 제발. B. /. C. 그냥.

16. 철수: 지난번에 가져간 책 다 읽었으면 가져 와. 책을 빌려 가면

() 떼어들 먹으려 드니, 원...

현우: 아니, 형두, 떼어 먹긴... 곧 갖다 드릴게요. 아직 끝내지 못
했지만 거의 다 읽었어요.

A. /. B. 그냥. C. 계속.

17. 철수: 이번 토요일 축구 경기 있대. 너 축구 좋아해?

현우: ().

철수: 음... 알았어. 나랑 한 번 같이 갈래?

현우: (안 가고 싶다)난... 토요일 약속 있는데.

A. 그냥. B. 응. C. 싫어.

18. 민아: 혹시 여자 친구 있어요?

철수: 왜 물어?

민아: ()... 궁금해서요...

A. /. B. 그냥. C. 뭐.

19. 존슨: 우리 동네 책방 아저씨는 나만 보면 어디 가느냐고 해요.

은영: 미장원 옆에 있는 책방 말입니까?

존슨: 예,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발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고 한 마디 해 주었어요.

은영: (가) 그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다니. (나) 가벼운 인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인데...

가. A. 뭐. B. 아니. C. 왜.
나. A. 진짜. B. 그냥. C. /

20. 영수: 다녀오겠습니다.

아주머니: (가) 벌써 나가세요?

영수: 볼 일이 (나) 있어요. 오늘은 늦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가. A. 뭐. B. 아니. C. 진짜.
나. A. 좀. B. 그냥. C. /.

21. 아내: 여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하고 얘기 (가) 합시다. 당신 무슨 일이 있길래 늘 그리 똥하고만 있는 거예요?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생겼다. 몸이 안 좋으면 안 좋다. 막말로 내가 싫어졌으면 싫어졌다. 말을 해야 할 게 아니예요?

남편: (나) 왜 아침부터 수선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남자들이 다 그런 거지, 여자처럼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하고 수달 떨어야 돼?

가. A. 좀. B. 이제. C. /.
나. A. 뭐. B. 아니. C. 아이고.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Adverb Discourse Marker for Chinese Learners —Focusing on 'Ani', 'Jom', 'Geunyang'

Zhang Yuex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ne of the main purpos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o improve learners' communication ability. However, accuracy of grammar and pronunciation has been exaggerated while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ability has been overlooked. Hence, to improve discourse skill of Korean learners, ability to communicate naturally using suitable expression in different situation and context is very important.

At discourse level, discourse marker plays an major role in transferring speaker's intention accurately to listener. Discourse marker helps to express speaker's attitude and feelings as well as helping the conversation runs smoothly. Among the many types of discourse markers, adverbials marker play the most important role. However, Chinese learners do not understand the difference and functions of adverb and adverbial marker in a conversation. Hence,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systemizing educational contents of adverbial marker to let Chinese learners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dverb and adverbial marker and able to use it in real life conversation like

Korean native speakers.

In chapter two, concepts and functions of Korean discourse marker were set out based on prior studies. Next, the usage and function of Korean discourse marker focusing on 'Ani', 'Jom', 'Geunyang' were examined. Furthermore, in order to understand how Chinese learners learn Korean discourse marker in China, the mostly used Korean text book in China's universities were analyzed. Chinese learners who learnt Korean in China were also picked to do a test regarding present condition of education and discourse marker understanding.

In chapter three, in order to analyze the usage of adverbial discourse marker between native Koreans and Chinese Korean-learners, a test was created based on Chapter 2. Then, the test was conducted and being analyzed. After that, a follow up interview were conducted on Chinese Korean-learner. Additionally, in order to analyze how Chinese Korean-learners use adverbial discourse marker in real life conversation, another test was examined. Lastly, causes of error and non-error differences when using adverbial discourse marker were analyzed

In chapter four,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on the purposes of adverbial discourse marker was designed based on contents and tests conducted in chapter 2 and 3. In other word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adverbial discourse marker, knowing the differences between adverb and adverbial discourse marker and understanding their functions and proper expression usage.

This study has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on analyzing the usage of Chinese Korean-learners' adverb and adverbial discourse marker and differentiate between adverb and adverbial discourse marker. Besides that, this study also facilitated the understanding and suitable usage of adverbial discourse marker on different situation and context and designed an effective education method on adverbial discourse marker for Chinese Korean-learners.

- * Key words: Korean Education, Adverb discourse marker,
Chinese learner, Ani, Jom, Geunyang
- * Student Number: 2013-23899